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 FEMINIST AND COGNITIVE BEHAVIORAL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Woon Song Park

May 2018

Copyright © 2018 by Woon Song Park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Woon Song Park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K. Samuel Lee, Chairperson

Namjoong Kim

Dean of the Faculty

Sheryl Kujawa-Holbrook

May 2018

ABSTRACT

UNDERSTANDING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 FEMINIST AND COGNITIVE BEHAVIORAL RECONSTRUCTION OF SELF-IDENTITY

by

Woon Song Park

In this DMin project I address identity issues of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Korea American pastors' wives typically work many hours for church, sacrificially, without the proper recognition, often struggling with the ambiguous and unrealistic expectation by congregation and their husbands. Their problems are exasperated because of their own internalized sexism and unhelpful theology. I interviewed three pastors' wives who live in Sothern California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m and to help them better claim their own identity. I used a feminist theological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ir struggle; and I used the cognitive behavioral theory to propose constructive strategies to help them recover their identity. I propose seven suggestions for these women to better claim their own identity. I recognize in this study that reclaiming self-identity is not simply an individual task. Their husbands, families, and churches need to be transformed as well. The deeply rooted patriarchal Confucianism in Korean American churches and families should be made visible and challenged.

KEY WORDS: Pastor's Wife, Self-Identity, Confucian Patriarchal Culture, Feminism, Korean American Church

SUMMARY

I conducted a qualitative research study with three Korean American participants who are all pastors' wives in the Los Angeles a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lf-identity issues of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From my experience with them, I found that they are treated as appendages to their husbands, and their self-identities are not constructed by themselves, but by the church members they serve and by their husbands. As a result, I became interested in recovering their self-identity and found that this issue originated from gender discrimination influenced by the Confucian and patriarchal culture of Korea. I researched feminist thought that confronts this culture, analyzed the research data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ir self-identity, and proposed alternative ways through which they can establish their self-identity.

Chapter 1 is an introduction to this project, and I explore the issues I mentioned above. I particularly focus on providing a brief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n Confucianism and patriarchal culture and on defining important terms used in this project. The important terms are self-identity, feminism, cosmopolitanism, the caring ethic of Carol Gilligan, cognitive behavioral theory, and qualitative research. I also describe my audience, the scope and limitations of this project, and its originality and contribution.

Chapter 2 deals with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project. In this chapter, I present more details about feminism, cosmopolitanism, the caring ethic of Carol Gilligan, self-identity, an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 present my research on feministic theology in Korean church history and explore how Nam Soon Kang's cosmopolitanism

and Carol Gilligan's caring ethic are connected to the recovery of the self-identities of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In Chapter 3, I report the results of my qualitative research study. The three research participants were recruited from the Elpis Ministry Center, of which I am the chief director. The purpose of this center is to provide healing and recovering ministry to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and women in the Los Angeles area. I used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approach as my research method, but the research results did not show clear issues with research participants' self-identities. After consulting with my academic advisors, I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gain with the research participants using Apriori coding method. With this coding method, I categorized the results according to four themes: self-identity as an agent, fixed concept of self-identity, voice, and Confucian and patriarchal culture.

In Chapter 4, I present my data analysis. Based on Giorgi'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 deduced four categories: cognitive distortion, pastor-centered ministry, stereotypes of church members, and Confucian influences. However, during my oral defense with my academic committee, I found errors in my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Based on the advice of the committee, I used Apriori coding, with which I used the four key terms of self-identity as an agent, fixed self-identity, voice, and Confucian patriarchal culture for the interview questions. With the new data analysis, I analyze the stereotypes of church members from the previous data analysis.

Chapter 5 is my conclusion, in which I summarize my project and propose seven factors for the identity recovery of Korean American pastors' wives. First, they have a sense of loss in their role. Second, they tend to regard their church work as God's work.

Third, they have a tendency to think their hardships are their own fault. Fourth, one of their problems is a financial problem. Fifth, pastors' wives have to work, not according to the expectations of their church members or their husbands, but according to their calling. Sixth, pastors' wives have lower social adaptation abilities because of their limited social experiences, and this negatively effects their self-identity. Seventh, pastors' families need a healthy sense of distance from their churches.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Page

I. 서론
Introduction 1

A. 문제 제기
Meaning and Purpose of Study 1
B. 논지와 토론
Thesis and Discussion 2
C. 용어정의
Terminology 11
D. 청중
Audience 18
E. 범위와 한계
Scope and Limitations 18
F. 독창성과 공헌
Originality and Contribution 19

II. 이론적 배경
Theoretical Backgrounds 20
A. 페미니즘
Feminism 20
B. 페미니즘의 흐름
History of Feminism 31
C. 코즈모폴리터니즘
Cosmopolitanism 38
D. 캐롤 길리건 (Carol Gilligan) 의 보살핌의 윤리
Carol Gilligan's Ethic of Caring 50
E. 한국교회사에서의 페미니스트 신학
Feminist Theology in Korean Church History 53
F. 자아정체성
Self-Identity 57
G. 인지행동이론

Cognitive Behavioral Theory 63

III. 심층면담 방법 및 절차
In-Depth Interviews and Their Process 74

A. 연구 참여자
Research Participants 74
B.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75
C. 연구 절차
Research Process 77

IV. 연구 결과 및 해석
Research Data and Analysis 83

A. 주체로서의 정체성
Identity as an Agent 84
B. 고정된 자아 개념
Fixed Self-Identity 91
C. 목소리
Voice 94
D.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Confucian Patriarchal Culture 99
E. 교인들의 고정관념
Stereotype of Church Members 107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112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Appendix A: Informed Consent Form 133

부록 B: 지오르기 (Giorgi)자료 분석 결과: 의미단위, 주제 및 구성요소
Appendix B: Data Analysis Based on Giorgi's Theory: Meaning Unit, Subject, and Components 136

참고문헌
Bibliography 143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Table 1: Basic Personal Informa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75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문제 제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모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80년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였다. 내가 출석하던 교회의 담임목회자의 아내인 사모와 여성사역으로 인해 가까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사모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내가 출석한 교회는 서울에 위치한 대형교회라서 그런지 사모의 모습은 여러가지 사역으로 늘 분주해 보였다. 새벽 예배에서부터 소그룹 인도, 자녀 양육, 남편내조로 지쳐있고 금식으로 야윈 사모의 모습은 나의 눈에는 연약하고 안쓰러운 여성으로 비춰졌다.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는 여러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사모에 대한 평가와 행동에 대한 비판의 소리였다. “사모가 인사를 해도 잘 안 받는 차가운 성격이다”, “평범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대단히 멋을 내는 사람이다”라는 대부분이 근거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그 때 나는 사모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이들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던지 사모에게 눈길이 갔다. 외로운 사모의 눈빛을 보면 먼저 다가가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내가 출석했던 교회들의 사모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사모의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길 인지를 감지 할 수 있었다. 지난 11년 동안

전문적인 목회돌봄을 해온 나는[1] 사모들을 위한 상담을 하다 보면, 사모들의 자아정체성[2]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역에서 소외된 채 이름 없이 묵묵히 남편 목회자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사모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런 과정에서 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유교 문화라는 거목과 목회자와 동일한 기대치를 요구하는 교회의 현실이 그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경험과 발견을 근거로 나는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 목회자 사모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여성신학적 관점으로 연구하고 또한 사모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고정관념을 발견하여, 인지행동이론적 접근(Cognitive Behavioral Theory Approach)[3]을 통해 정체성 회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목회돌봄을 제시하려 한다.

B. 논지와 토론

목회자의 아내를 '사모'(師母)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모'라는 호칭은 감독, 목사, 장로, 집사처럼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직분이다. 그렇다면 사모라는 호칭은 아마 유교적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독특한 호칭일 것이다.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사회적 신분에 따라 사람에 대한 호칭을 세밀하게 나누어서 서열을 매기는 것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유교 문화의 특징이다. '나'를 나타내는 호칭도 교회에서는 다양하게

---

[1] 나는 21 기 생명의 전화 상담원, 장평중학교 상담교사로 1995-2000 년도까지 봉사했으며, 2006 년도부터 전도사로 상담사역을 하였고 2012 년 목사 안수를 받고 상담사역을 계속하고 있다.

[2] 내가 앞으로 언급할 자아정체성이라는 용어는 정체성, 주체성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 정체성이란 의미는 사모로서의 정체성보다 더 포괄적이다. 이숙진이 지적하듯이 성차별 구조의 가부장적 교회 여성들에게 배제된 자율성과 주체성과 독창성 그리고 존재감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숙진, *한국 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6), 18.

[3] 인지행동이론은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감정과 행동을 만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형성된 사고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상담기법 중의 하나이다. 전요셉,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2), 6-7.

나타난다. 평신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라는 호칭을 들으면,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서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모'라는 호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남편이 목회자이면 자동으로 교회에서 '사모'라는 직분 아닌 직분을 갖게 된다. 양혜원은 '사모'라는 호칭은 자신의 주체에 따른 호칭이 아니라 남편의 신분에 따른 호칭이라고 지적한다.[4] 다시 말해,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신분이 아니라 어느 남편 목사의 아내라는 '부여받은 정체성'이다. 이 부여받은 정체성이 '사모'의 존재 자체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5]

이것은 여자가 목사이고 남편이 목사가 아닌 경우를 생각하면 불평등한 측면이 확실히 있다. 여자가 목사인 경우 남편에 대한 호칭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남자들은 아내가 목사가 되어도 교회에서 받은 집사, 장로라는 직분을 그대로 사용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부른다. 목회자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 배우자 또한 그런 의미에서 '사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여자 목회자의 남편들에게도 교회 직분을 줄 것이 아니라 '사부'(師夫)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 논리상 맞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정윤석이 지적하는 것처럼 결국 '사모'라는 호칭이 가부장적 유교 문화인 남성중심주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6] 더군다나 목사를 칭할 때는 대부분 남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배적이다. 여성이면서 목사인 나의 경우도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여자가 목사'라며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을 많이 접한다. 실제로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

[4] 양혜원, "사모라는 호칭에 갇힌 나," *미주 뉴스 앤 조이,* Feb. 17, 2010,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6 (Accessed June 21, 2017).

[5] 안석모, "사모의 정체성문제에 대한 허와 실," *목회와 신학* 189 (2005), 134.

[6] 정윤석, "어정쩡한 직분 사모, 차라리 폐지할까?," *교회와 신앙*, Oct. 30, 2006,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6 (Accessed June, 19, 2017).

여성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이 존재한다. 얼마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예장 합신)이 102 회 총회에서 여성 안수는 불가하다고 재 확인한 기사가 그 예이다.[7] 합신은 여성들에 대해 "여성을 안수하여 직분(목사, 장로, 안수집사)을 계승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8]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사모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가부장적 유교 문화인 남성중심주의와 계급주의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가부장적 유교문화인 남성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나타나는 사모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남가주 지역에서 사모성경모임을 진행하는 황영실은 "사모에 대한 관점과 기대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사모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한다.[9] 사모의 정의에 대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모들 자신이 사모의 정의에 대한 모호함 때문에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사는 '성직자'로서 목회자를 인식하기 때문에, 사모에게도 유사한 이미지나 역할 등을 기대하며 요구한다. 이것이 바로 남성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모는 마치 남편 목사의 부속물처럼 당연히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김선주는 "만약 사모가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거나 행동이 튀면 교회에선 자칫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사모가 '조신하지 못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문제를 삼는데, 목사에게 갖는

[7]이은혜 , "[합신 1] 여성안수 불가 재확인-하나님의 창조질서," *뉴스앤조이*, Sep. 20, 2017, http://m.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93 (Acceseed Sep, 28, 2017).

[8] Ibid.

[9] 장열, "사모의 한숨 …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LA 중앙일보*, Feb. 16, 201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9419 (Accessed July, 17, 2017).

기대를 사모에게도 강요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10] 사모가 색깔이 밝고 화사한 옷을 입으면 화려하다고 지적하고, 무채색 옷을 입으면 사모가 너무 어두운 것 같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은 사모가 하소연하는 소리를 나 또한 들은 적이 있다. 사모가 여러 교인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치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사모는 그들의 소리에 대한 부담감과 중압감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제시하는 사모에 대한 정의는 모호하기 때문이다.

> 이 모호한 정의의 한 예는 김남준의 사모에 대한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
> 목회자의 아내, 그는 단지 한 남자의 아내일 수 만도 없고 교회의 지도자는 더욱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평범해서는 안되는 그리스도인 입니다. 그는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욱 뛰어난 소명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처럼 독특한 자리에 세움을 받은 특별한 일꾼들은 없습니다. 그는 일생을 단지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선지자처럼 핏빛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11]

이 얼마나 가혹한 정의인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사모, 교회의 지도자도 아니면서 지도자보다 더 뛰어난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점점 모호해지는 사모에 대한 인식과 정의는 결정적으로 핏빛 인생의 선지자처럼 살도록 부름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끝을 맺는다. 김남준의 사모에 대한 정의는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중간 단계의 존재로 사모를 묘사하는 것 같다. 이와 같은 사모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교회가 사모에 대해 얼마나 많은 요구와 기대들을 가지고 명확하지 않은 사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사모들의 자아 정체성의 혼란의 문제로 귀결됨을 나는 목격해 왔다.

---

[10] Ibid.

[11] 김남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77.

또 사모들의 자아 정체성의 혼란의 원인 중 다른 하나는 심하보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모는 눈길이 덜 가는 곳을 살핀다* 라는 책의 제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심하보는 교회에서 요구되는 사모의 역할은 잠잠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교회 구석구석을 살피며 그 때마다 필요한 손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2]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중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모들은 스스로 죄의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실례로,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고 있는 A 사모는 스트레스가 심해서 위장장애를 앓고 있다. 그녀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자신에 대한 기대와 요구에 비해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모두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교회에서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서, '편하게 웃는 모습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고백을 나는 들은 적이 있다. 나와 대화를 나눈 어느 대형 교회 담임목회자의 아내인 B 사모는 지난 십년동안 교회의 기대와 요구에 분주하게 자신을 헌신하면서 훌륭한 사모라는 말을 늘 듣고 살아왔는데, 어느날 보니 건강 이상이 온 몸으로 나타나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 회복된 경험을 말하였다.

이처럼 사모에 대한 인식은 성직자인 남편 목사와 비등한 역할을 요구하면서도 남편 목사에게 부여된 권위는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구석구석을 살피며 소리없이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존재 속의 비존재 역할'을 요구하는 것도 바로 남성 중심주의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남성중심주의 시각을 더 심층있게 바라보면 교회내에서의

---

[12] 심하보,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모는 눈길이 덜 가는 곳을 살핀다* (서울: 나침반, 1999).

[13] "교회 리더도 아니고 멤버도 아닌 목회자의 부인들이 겪는 고충은 존재의 비존재들 이라고 할수있다." 강남순, Claremot School of Theology 실천신학 목회학박사과정, 페미니스트 신학 강의 내용 (2016. 1. 6).

남녀의 성차별 문제가 부각된다. 이숙진은 한국 개신교가 억압당하던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종교로 인식되어 있지만, 이것은 부분적이고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 전통과 유교전통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가부장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는 종교라고 말한다.[14] 이에 대해 강남순도 한국교회에서 여자 성도들이 겪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1992 년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의 수는 3 만을 넘었고, 교인수도 1 천만을 넘는다고 한다. … 우선적으로 이러한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한국교인의 70%를 이루는 여성들의 헌신과 희생이 밑받침되어 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의 성장 논의에서 사실상 간과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력이 여전히 30%의 성원을 이루고 있는 남성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교회가 질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다.[15]

강남순의 지적에서 시사하는 바는 여성에 대한 전적인 희생을 교회가 강요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순의 관점을 목회자 사모라는 호칭이 내포하는 의미에 적용한다면, 나의 주장은 목회자와 동일한 엄격한 헌신과 희생의 기준을 교회가 어떠한 기준도 없이 사모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면, 유교적인 남녀차별 사상이 교회 안에서도 깊게 뿌리내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속에서 남성은 태어날 때부터 우수하고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라는 성차별에 대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례들과 경험들이 있다. 한국의 성차별의 역사적 상황에 대하여 조주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1944 년 당시 한국여성의 96.1%가 무학이었고, 1930 년 당시 취업여성의 90%가 농업에 종사했으며, 평균 결혼 연령이 17.0 세 이었고 인구 1000 명당 출산율은 42.1 이었다. 즉 대다수 한국여성들은 전통적인 가족제도 안에서 조혼을 하였고,

---

[14] 이숙진, *한국 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6), 7.
[1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53.

> 임신, 출산을 스스로 조정할 수 없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구성할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16]

예를 들어, 조선시대 여성들은 남성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따로 먹었으며 심지어 여성은 부엌에서 먹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또한 여성들에게 학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교육을 받고 싶은 여성이 학교 창문너머 남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들여다보며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다. 여성을 학습시킬 경우, 그 이유도 남성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처럼 유교문화에서는 여성의 복종이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공자가 말했다고 전해지는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유교문화의 특징을 설명해 준다. "여자들도 인간 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남자 보다도 낮은 계급에 있으며, 결코 남자들과 완전히 평등한 상태에 이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여자들을 교육하는 목적은 정신적인 계몽이나 수양이 아니라 전적인 복종을 가르치기 위함이다."[17]

이와 같은 유교사상과 문화는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은 남아선호사상이 강한 편이다. 또한 여성은 사회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남성에게 복종하며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사모들이 자신의 위치를 목회자인 남편의 부속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유교사상과 문화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의 결과이다. 이런 문화의 결과는 예전부터 전해내려오는 속담 중 여성비하 속담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한국속담의 대표적인 예가

---

[16] 조주현, "20 세기 한국사회 성담론과 여성의 지위," *정신문화연구* 22, no. 4 (1999): 56.

[17] Margaret E. Burton, *The Education of Women in Chin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19.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등의 속담이라고 밝히면서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해 이와 같은 여성 비하의 속담들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18]

한국의 드라마에서도 ‘성차별’이 심각하게 표출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서울 YWCA 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협력해서 지상파, JTBC, tv N 등 드라마 22 편을 분석한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20 건, 성차별적 내용은 49 건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2 배 이상 많았음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MBC ‘워킹맘 육아대디’(2016 년 6 월 2 일)의 대본 중에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앞에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아이를 맡기나”라며 양육은 엄마이고 남편과 아내는 수직적 관계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SBS ‘그래, 그런거야’(2016 년 6 월 5 일)의 내용중에 신혼여행을 다녀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여자는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해야 좋아해”라는 대본이 있다. 여성을 비하해서 마치 외모만이 여성에게 중요하다는 외모지상주의를 주장하는 말투이다.[19] 케스첵(Kaschak)은 “이런 외모지상주의와 교육으로부터 파생된 결과는 결국은 남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이 하찮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20]

---

[18] 권혜진, “‘암탉이 울면 집안이…’ 같은 속담이 양성평등 저해,” *연합뉴스*, Sep. 25, 201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5/0200000000AKR20150925075800005.HTML (Acceseed Oct 9, 2017). 성의 평들을 다룰 때 우리는 보통 남자와 여자의 양성에 대해 논의하지만 오늘날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 젠더까지도 성의 영역에 포함시켜 다룬다. 이 논문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두 가지의 성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제한다.

[19] 곽상아, “여자는 그저 예쁘다, 예쁘다 해야 좋아해”: 드라마의 성차별 사례 9 가지,” *허프포스트코리아*, July 26, 2016, http://www.huffingtonpost.kr/2016/07/26/story_n_11191392.html (Acceseed Sep, 30, 2017).

[20] Ibid., 125.

이것이 과연 지나친 주장일까? 나는 이런 관점에서, 사모들도 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옷맵시도 단정하고, 교인들이 보기에 품위있고 정숙해야 함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이 외모지상주의와 교육으로부터 파생된 결과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늘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해서 편한 복장을 선호하는 사모에게 교인들이 바지대신 치마를 입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차별이라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남성들 뿐아니라 같은 여성들의 입장도 동일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결국 사모들의 옷차림과 외적인 품위에 대한 고정관념은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변혁하지 않는한 반복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임을 나는 관찰하였다. '여성은 이래야 만된다'라는본질 주의[21]와 가부장적인 유교적 영향인 여성에 대한 내면화[22]로 인해 여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틀에 스스로 갇히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교회의 피해자이면서 희생자가 될 수도 있는 사모들에게 정체성 회복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써,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문제가 시급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은 사모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남성들 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와 남성과 여성이 함께 변혁해야 할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또한 사모들의 정체성 회복이 교회의 문화와 사회의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모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에

---

[21] 본질주의란 이미 고정된 틀에 여성을 상자화하는 것이다.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56.

[22] 내면화란 사회에서 요구되는 여성상을 규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틀로 예를 들면 어머니날에 희생을 해온 어머니에게 상을 줌으로서 희생의 덕목이 어머니에게 가장 귀중하다는 것을 내면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내면화는 II 장 이론적 배경에서 자세히 설명된다.

직면해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는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교회에서 여성인 사모에 대해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사모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정체성에 혼란을 주는 인지왜곡을 치유하기 위해 인지행동이론(Cognitive Behavioral Theory)을 통해 대안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I 장에서 나는 사모들에 대한 주변의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사모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차별로 인한 사회의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II 장에서는 가부장적 성차별주의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간이란 성별을 초월하여 존엄성과 평등성을 지닌 존재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되어 모든 차별에 대한 반향인 페미니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통해 새롭게 정립되어가는 여성의 정체성이 사모들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사모들의 정체성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지행동이론를 제시할 것이다. III 장에서 나는 사모들의 정체성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끼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그들의 경험을 분석할 것이다. IV 장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된 사모들의 경험을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석하고,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이 주장하는 보살핌의 윤리가 사모들의 정체성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하고, 강남순의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이 사모들과 어떤 연관을 지울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V 장에서는 사모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페미니즘과 연관하여 살펴본 분석결과를 통해 정체성의 재정립을 위한 대안으로 결론을 맺는다.

C. 용어정의

1. 자아정체성(Self-Identity)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물음에 답을 하기는 쉽지 않다. 내가 나인 것을 어떻게 상대방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또한 내가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물었을 때도 나를 규정해서 답하기는 어렵다. 이런 실존적인 물음인 정체성에 대해 철학과 교수인 이정우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선 생각할수 있는 주체는 우리가 '술어적 주체'[23]라고 부를수 있는 주체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존재론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주체를 '범주적 주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24] 이런 술어적 주체들이 모여져서 언표을 만들어간다고 이정우는 설명한다. 여기서 언표의 주체와 언표행위의 주체가 일치할 때 한 주체의 '자기 의식'이 성립되며, 자기 의식이 없이 주체는 주체가 될 수 없다.[25] 즉 주체가 되려면 자기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정우는 또한 자기 의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자기의식이란 어떤 가름의 의식을 뜻한다. 즉 나와 나 아닌 것은 다르다는 것, 나와 나 아닌 것 사이에는 불연속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할 때 자기의식이 발생한다. 자기의식은 자(自)와 타(他)의 구분을 함축한다"[26]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식에 대해 최정선과 김희수는 버논 전커(Vernon G. Zunker)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규명한다.

> 자기의식(self conciousness)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사적 자기의식(private self-consciousness)은 자신에게 주의의 초점을 기울이는 것으로 자신의 사고, 감정, 태도, 기분, 신체적 상태를 인식하는 정도이다. 둘째, 공적

---

[23] 술어적 주체란 술어들을 주체로 규정해 주는 것으로 명사, 형용사로 구성된다. 예를 들면, "철수는 머리가 검다. 철수는 키가 6 피트이다. 철수는 노래를 잘한다"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철수라는 주체의 연관성을 타자들이 인식하므로 내면화하게 되고 이때 사람들은---이라는 언표들을 내면화됨으로써 "나는 ---이다"라는 언표들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출판사, 2009), 14-15.

[24] Ibid., 14.

[25] Ibid., 15.

[26] Ibid., 17.

> 자기의식(public self-consciousness)은 외부 사람들에 의해 자신이 어떻게 관찰되고 있는지에 주의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표정, 언행, 자세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 불안(social anxiety)은 다른 사람들의 관찰대상으로서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주의하는 것으로 직면하는 일이나 상황에 적응하는 정도이다.[27]

전커(Zunker)의 자기의식의 세 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생각한다면 사모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적 자기의식이 확고하지 않고 공적 자기의식과 사회적 불안에 몰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를 나타내는 데에 익숙하지 않고 교인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선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데도 소홀할 수 있다. 또한 교인들의 시선으로 늘 긴장하고 있으며, 나의 반응이 교회나 남편 목사에게 미칠 영향을 늘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목회상담을 받고 있는 B 사모는 성격이 활발하고 솔직한 성격인데, 요즘에는 교회에 가면 입이 마르고 손에 식은 땀이 나서 교인들과 악수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그 이유는 어느 교인이 대화 중에 말뜻을 잘못 이해해서 사모가 자기를 비하했다고 소문을 낸 이후부터 라고 한다. 이처럼 사모들은 교회공동체에서 전커(Zunker)가 제시한 사회적불안(social anxiety)의 요인으로 인해 힘들어 한다.

2. 페미니즘(Feminism)

페미니즘이란 주체로서의 여성(female subject)의 특성과 위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 주체(human subject)가 아닌 성별화된 주체(gendered subject)의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규범(norm)을 제시해 나가려는 연구이며 모든 차별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다.[28] 페미니즘은 세상의 권력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렌즈이다. 이 렌즈에는 성적인 차별성을

---

[27] 최정선 and 김희수, "유치원교사가 지각한 자기의식 수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 no. 5 (2014): 390.

[28]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41.

근거로 하며, 이를 포함한 모든 권력 안에 있는 차별성에 관해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29] 페미니즘은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의 문제를 생물학적인 요소인 섹스(sex)와 사회문화적 요소인 젠더(gender)로 구별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30] 성차별을 넘어서 모든 구조적인 차별 즉-인종, 계급, 약자, 소수의 목소리 등 권력구조나 문화구조에서 나타나는 약한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페미니즘은 여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근거뿐만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다.

3.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강남순에 의하면 코즈모폴리터니즘에 근거한 인간이해란 살아있는 인간은 단지 '생명'을 지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31] 이러한 맥락에서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 정체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성별, 인종, 문화, 성적 성향 등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고정적 정체성을 넘어 '지구적 관점'을 강조한다. 둘째, 다양성과 상이성에 대한 전적 개방성과 지속적 예민성에 근거해 있다. 셋째, '나와 너' 또는 '우리와 그들'의 불가피한 상호연관성에 근거해 있다."[32]

이런 범 우주적 관점에서 보는 코즈모폴리턴 정체성은 모든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며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시각의 확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공헌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성의 관점과 남성의 관점이 구별되어 만나지 못할 평행선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정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코즈모폴리터니즘 이해는 페미니즘이

---

[29] 김상화, 39.
[30] 황은덕, "페미니즘과 우머니즘," *여성학 연구* 17, no. 1: 113.
[3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18.
[32] Ibid., 51.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준다.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을 보면, 예수의 교훈과 행함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강조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가치들이 모두 들어있는데, 예수의 메시지는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내용이다.[33]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남녀의 차별을 뛰어넘어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여 우주의 진리와 선을 이루어나가는 것을 지향하려는 것이 예수의 메시지이고 기독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4.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

페미니스트인 길리건(Gilligan)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보살핌의 윤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도덕 발전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콜버그(Kohlberg)이론의 남성위주의 도덕성에 반박함으로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34] 즉, 여성들은 그들이 가진 도덕적 관심의 본질이 남성과는 다르다는 것인데, 구별되는 본질의 중요한 특성이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한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기 됨, 그리고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규정지을 뿐 아니라 보살핌의 능력을 기준으로 자신을 측정한다고 한다.[35]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독립'적인 특성보다는 '친밀감'의 특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 여성은 도덕적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도 '정의'보다는 '보살핌'을 더욱 강조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

[33] Ibid., 148.
[34]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7), 91.
[35] Ibid., 65.

하지만 나는 교수 지도위원회의 대화를 통해 길리건(Gilligan)의 이론이 고정적 자아의 개념으로 남과 녀를 구분하는 오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본질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시몬느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여자는 여자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는 없다.[36]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차이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인식되어 온 특성들이 선천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은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습득된 것이라는 관점이다.[37]

나는 페미니즘 이론을 학습했지만 이 의견에 동의하게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늘 여성성과 남성성으로 구분지어서 세미나를 해왔던 나의 경험으로 남성적 혹은 여성적이라고 인식되어온 특성들을 내면에서 허무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교수의 코멘트(comment)를 들으며, 나의 고정관념이 조금 씩 허물어져가면서 점점 선명하게 '고정된 자아란 없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길리건(Gilligan)의 연구의 의의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에게 관계란 소중한 것이며, 우리 모두 관계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특히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보살핌과 친밀함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인 것을 깨달았다. 길리건(Gilligan)의 이론은 단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에게만 적용된다면, 사모들이 힘들어하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성이라는 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36]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65.

[37] Ibid.

5. 인지행동 이론(Cognitive Behavioral Theory)

1960년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으로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던 아론 벡(Aaron Beck)은 과거의 억압된 갈등을 드러내는 프로이드의 방법이 치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많은 환자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환자가 말하고 있는 "현재" 내용이며, 이 내용속에서 발견되는 부정적 사고라는 것을 벡(Beck)은 깨달았다.[38] 부정적 사고에는 인지왜곡, 고정관념, 핵심신념, 중간신념, 자동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은 인지행동이론이 포함된 2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할 것이다.

6. 사모

사모는 원래 스승의 부인이나 자기보다 윗사람의 부인을 높여서 부를 때 사용되었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모든 교역자의 부인을 지칭하는 말로써 목회자 부인을 존칭하여 부를 때 사용한다.[39] 사모의 정의는 목사, 전도사, 선교사로 사역하는 남편을 둔 아내를 의미한다. 그리고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 사모란 교회에서의 공적 명칭으로 불리울 수 없는 남성 목회자의 부속물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변인이고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반영하고 있다.

7. 질적연구(Qualitative Research)

신충식에 따르면 질적연구란 "객관과 데이터에 따라 어떤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하려는 계량적 접근 방법에 반하여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서술적(descriptive)접근

[38] Stephen Briers, *Brilliant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똑똑한 인지 행동치료*, trans. 김선욱 et al.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6-7.

[39] 김상화, 1.

방식"이다.[40]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크레스웰(Creswell)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모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부로부터 나오는 각 개인들의 체험적 서술이 필요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41]

D. 청중

본 논문에서 가장 일차적인 청중은 사모들이다. 그리고 사모를 아내로 둔 목사, 전도사, 선교사들이 2 차적 청중이 된다. 3 차적 청중은 기독교 교인들과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이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주변인, 피해자와 같이 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희생하며 노력하는 사람들도 청중이다.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내는 공적 의미가 있다.

E. 범위와 한계

본 프로젝트를 통해 흔들리는 사모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페미니즘 관점으로 논증하고, 사모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페미니즘에 근거한 몇가지 주제어-주체로서의 정체성, 고정된 자아개념, 목소리,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를 분석하였고, 인지행동이론을 근거로 교인들과 사모 자신의 고정관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계점은 사모들의 문제가 사모만의 인식의 변화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가

[40] 신충식, "질적 연구 방법과 현상학," *사회과학* 42, no. 1 (2009): 86, quoted in 이상수: 105.

[41] John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 방법론*, trans. 조흥식 et al. (서울: 학지사, 2010), 91.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 더 넓게는 사회의 테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해결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 목회자와 가족과 교인들의 정황을 함께 분석하여야만 한다. 이것이 이 프로젝트의 한계점 중 하나이다. 또한 본 논문을 위하여 진행한 질적연구는 미국 엘에이 한인 교회 3 명의 사모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연구 방법이므로 미국의 타지역이나 한국에 있는 사모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F. 독창성과 공헌

내가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에서 사역하는 사모에 대한 학위 논문은 최근 10 년동안 10 편 이내의 학위논문이 발표되었다.[42] 그 10 편 미만의 논문들 중에 박사학위 논문은 일부이다. 더구나 한인교회 사모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논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프로젝트의 독창성이 있으며 이들의 영적/정신적 건강을 위해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모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데 이 논문이 학문적, 목회적 시각을 제시하고 사모들의 어려움을 인지행동이론이라는 심리치료적 접근을 시도하는데에 또한 독창성과 공헌이 있다.

[42] 한국에서 발표된 목회자 사모에 대한 논문 몇 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상화. "중년기 목회자 사모의 자아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치료적 적용." 박사학위논문, 서울 기독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7.
최미선. "인지요법을 활용한 목회자사모의 우울증 치료 프로그램."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2007.
변정숙. "목회자사모의 인지 행동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과 그 효과성 검증."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대학원, 2008.
김애란. "교회부교역자 아내의 역할 갈등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2011.

Chapter II

이론적 배경

II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이론들의 내용을 다루고자한다. 본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주요 이론은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흐름, 한국교회사에서의 여성신학,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 코즈모폴리터니즘, 그리고 인지행동이론이다. 첫째, 나는 페미니즘의 입장을 살펴보고 여성의 정체성을 다룬다. 둘째, 나는 페미니즘의 시대적 흐름을 다룬다. 셋째, 나는 길리건(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를 다루되 이 보살핌의 윤리가 어떻게 사모의 정체성과 연결되는지를 볼 것이다. 넷째, 한국교회의 페미니즘신학을 교회사적 관점에서 다룬다. 다섯째, 나는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사모와의 정체성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고정관념을 교정할 수 있는 인지행동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A. 페미니즘(Feminism)

내가 페미니즘에 대해서 처음 들은 것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페미니즘 운동이 성차별의 문제제기로 시작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성차별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나의 가족 배경을 생각해보면, 1 남 5 녀의 가정에서 성장해서 늘 여성들의 목소리가 컸었다. 나의 어머니는 1960 년대부터 사업을 하셨고 아들과 딸들의 교육과 성장에 대해 특별히 차별이 없으셨다. 가부장제가 심한 한국 가정에서 '여성도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진보적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나는 2006 년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에서 페미니스트 신학 수업을 통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강의 내용은 페미니즘이란 '여성도 인간이다!'라는 단호한 선언으로 출발했다.[43] 즉, 페미니즘은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으로 시작된 운동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나는 페미니즘을 통해 가부장제인 성차별주의에서 구조화 된 가치관, 제도, 구조, 의식 등에 대해 근원적인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차별 즉, 인종, 성별, 계층 간 차별 극복과 '중심부'에서 배제되어온 '주변인'들의 인권과 평등 그리고 정의에 관심을 가지는 운동이 바로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인식하게 되었다.[44] 이런 측면에서 보면, 페미니즘을 단지 '여권 신장을 위한 운동' 혹은 '여성 해방 운동' 등으로 '여성'에 강조점을 두어 번역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만을 지지하는 운동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강남순의 지적에 대해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45] 왜냐하면, 나도 페미니즘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가 '여성'만을 강조하는 듯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의 한국 번역이 지닌 한계성이 나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었기 때문이다. 강남순은 페미니즘(feminism)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쓰지 않고 원어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순히 "여권주의"나 "여성해방주의"등의 용어 만으로 페미니즘의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이다.[46]

---

[43]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57.
[4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4.
[4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4.
[46]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37.

이런 잘못된 인식은 나 뿐 만이 아니다. 현재 한창 미투 운동[47]이 확장되는 한국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K 영화 감독의 2012 년 인터뷰[48]의 내용을 보면, "외국에 나가면 오히려 저보고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 [제가] 한국 감독 중에 여자를 가장 섬세하게 그리는 감독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감독이라는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영화 배역을 맡은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하였는데,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할 성폭력범이 자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페미니즘을 여성 지향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넘어서 페미니즘에 대한 개념조차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이 어떤 운동인지를 분명하게 사회에 인식시키는 문제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

[47] 미투 운동(영어: Me Too movement, #MeToo)은 2017 년 10 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에서 인기를 끌게 된 해시태그(#MeToo)를 다는 행동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운동이다.이 해시태그 캠페인은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사용했던 것으로, 앨리사 밀라노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밀라노는 여성들이 트위터에 여성혐오, 성폭행 등의 경험을 공개하여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의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수많은 저명인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을 밝히며 이 해시태그를 사용했다. 이후 이러한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B%AF%B8%ED%88%AC_%EC%9A%B4%EB%8F%99 (Accessed March 16, 2018).
한국에서는 2018.1 월 현직 검사 서지현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검찰 내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전효진, "서지현 검사가 8 년만에 '미투(MeToo)'를 외친 까닭은?" *조선일보*, February 26, 201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30/2018013001857.html (Accessed March 16, 2018).

[48]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 의 인터뷰 내용을 2018 년 3 월 6 일자 MBC PD 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에서 방영중에 첨가된 내용.

http://www.ondemandkorea.com/the-producers-notes-e1145.htm (Accessed March 16, 2018).

페미니즘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모습과 목표로 변화되어 왔다. 강남순은 이런 차원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단일한 고정된 틀을 지닌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형성되어가는 가운데 있다고 설명한다.[49]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대해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형성되고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착화되고 정체된 개념으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페미니즘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갈지를 유심히 들여다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초기 페미니즘의 본래적 목표는 여성에 대한 남성과 동등한 교육 기회와 법적 평등성의 확보였다.[50] 이런 목표는 단지 남성과 같아지려는 시도 자체에 무게 중심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남성에 대한 또 하나의 우월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그들의 오류는 정체성에 대한 개념을 모든 여성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공통적이고 고정된 본질주의(essentialism)적 구조를 지닌 자아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51] 이런 고정된 자아는 '여성은 이런 것이다, 남성은 이런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이분화 해서 여성이나 남성을 보편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사모로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정된 자아가 있다. '사모이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 밖에 없어' 라는 고정된 자아는 자신만의 고유한 개인적인 특성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개체 인간을 규정하는 '고정된 자아'는 사실상 없으며 인간을 구성하는 초개인적 특성이란 없다고 주장한다.[52]

---

[49]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6.
[50] Ibid., 42.
[51] Ibid., 53.
[52] 강남순, *페미니스트신학*, 51.

강남순은 이런 맥락에서 생물학적 본질주의(biological essentialism)를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개념 속에 절대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다고 주장하는 고정관념이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53] 이런 고정관념은 결국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해야 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차별 문화를 만들 소지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다른 개념으로 사회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를 소개한다.[54] 사회 구성주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여성,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로부터 구성된 후천적인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말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학적으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페미니즘(post-feminism)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페미니즘은 '본질주의적 정체성'을 비판하고 서로 상이한 여성 정체성을 제시한다. 곧 획일적 정체성에 근거한 '하나됨(uniformity)'이 아닌 차별을 넘어서서 보다 더 평등한 가정, 교회, 사회를 이루어 나가려는 다양성 속의 '하나됨(unity)'이다.[55]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고정 되어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이경식 (Kyungsig Samuel Lee)은 남성성, 여성성은 사회적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역사와 문화, 사회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존재임으로 우리 자아에 대한 본질주의적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56]

---

[53] 강남순, Feminist Theory Class, Jan. 2006.

[54] Ibid.

[5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54-55.

[56] 이경식,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Pastoral Counselling Independent Study, Mar.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생물학적 본질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논문 프로젝트를 쓰면서 깨닫게 되었다. 나는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 현상학적 연구를 한 길리건(Gilligan)의 이론을 거의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나의 프로젝트에 적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논문 프로젝트를 쓰는 과정에서 교수위원회와의 대화를 통해[57] 내가 여성성과 남성성에 근거한 매우 본질주의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된 것은 사실 내 경험과 관련이 있다. 나는 교회에서 가정세미나를 하거나 부부 상담을 할 때,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하면 부부간의 혹은 이성간의 이해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존 그레이의 책 제목 처럼 남녀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을 통해 서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과 교육 경험이 본질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명분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나의 인식과 관점이 오류임을 확실히 인식한 것은 논문 프로젝트 구두시험을 마친 후 딸과의 대화를 통해서였다. 딸은 나에게 "엄마가 이 정도면 다른 여성들은 어떨까요?" 엄마는 그래도 60 세라는 나이에 비해 계속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적을 줄 알았는데, 그런 인식과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교인들이나 사람들은 더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였다. 나는 여성에게는 여성성이 있고 남성에게는 남성성이 있다는 본질주의적 관점에

[57] 논문 부심 교수인 김남중 교수는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이 주장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차이를 내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 차이를 전제로 내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한 것 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한 이해가 나에게 고정관념으로 내면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본질주의적 관점이 오류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즉 개인을 개별화 시켜서 하나의 보편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래전부터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은 유교적 여성상을 자아정체성의 본질로 내면화 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언순은 조선시대의 여성을 연구하면서 유교적 여성상의 내면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인간다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내면화, 둘째, 사회적 비난을 피하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의무적으로 내면화, 셋째, 강제된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써 내면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58] 이와 같은 유교적 여성상의 내면화는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타난다. 어머니의 날 행사에서 희생적으로 자식들을 키워온 어머니를 훌륭한 어머니로 기념한다든지, 혹은 병석에 누워있는 시부모를 공양한 며느리를 훌륭한 며느리로 상을 주는 의례는 유교문화에서 '가문의 흥망이 여성의 선악에 달렸다'는 내치론[59]과도 연결되면서 한국 여성들에게 유교적 여성 규범을 내면화하도록 강제적으로 주입하는 기능을 하였다.

강남순은 이런 본질주의적 관점의 오류를 비판한다. 이런 본질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사회에서 어떤 인물을 묘사할 때 어떤 사람은 '희생자'로 어떤 사람은 영웅적 '행위

[58] 김언순,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 *페미니즘 연구* 8, no. 1(2008): 1.
[59] Ibid, 1.

주체(agent)'등 극단적으로 양분화된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비판이다.[60] 이런 고정된 틀은 사모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데, 고정되지 않은 사모의 관점에서 보면 훌륭한 사모와 그렇지 못한 사모라는 이중적인 틀에 가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구분은 가부장제와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은 교회 문화에서 비롯된 부산물일 뿐이다. 유교문화가 강제로 주입해 온 내면화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의 변혁과 동시에 사모들에게도 행위 주체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경식에 의하면 행위 주체(agent)란 말뜻은 스스로 어떤 일을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키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동적인 힘을 의미하고, 그러한 능동적인 힘의 소유자가 에이전시(agency)라고 한다.[61] 사모들에게도 이런 에이전시(agency)를 키워나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사모들은 교회와 사회의 영향력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아닌 사모라는 부여 받은 역할[62]로 인한 혼란 속에서 주체로서의 인식, 즉 에이전시가 부족할 수 있다.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 주체성[63]을 회복시킨다는 의미는 에이전시를 키워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주체성회복을 위해 사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 여성들은 한국의 가부장적 유교적 영향이 뿌리 깊어서 여성은 항상 부수적인 존재로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성인 나도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면 무의식적으로 나는

---

[60]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56.

[61] 이경식,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Pastoral Counselling Independent Study, Mar. 2018.

[62] 안석모, "사모의 정체성문제에 대한 허와 실," *목회와 신학* 189 (2005): 134.

[63] 이정우에 의하면, "주체가 '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인식적 변화(modification)와 감정적 변화(affection)를 통해서 계속 타자화되면서도 동일성-시간 속에서 변해 가는 동일성 즉 정체성-을 지속시켜 나감으로써 '나'라고 하는 주체성이 존립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정체성과 주체성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우정, *주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13-14.

여자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종종 침묵으로 돌아온 적이 여러 번 있다. 이런 경향은 나의 성격이라기보다 암암리에 여성은 잠잠해야 한다는 유교적인 가부장제도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해 나를 통제하는 것 같다. 가부장제는 남성 지배 체제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반면 여성의 주체성 상실을 야기시키는 근본적이 원인이 되어왔다.[64]

페미니즘은 성 차별주의 즉, 남자와 여자의 불평등한 지위를 반영하고 강화하는 유형, 행동, 체제와 구조가 우리 세계를 통제하는 지배 유형들의 원초적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성 차별주의, 인종차별주의, 계급주의, 군국주의, 신식민주의, 생태계 파괴 등은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게 종속을 요구하는 체계, 다시 말해 남성의 최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능하는 현 체제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체제를 가리켜서 가부장제도라고 한다.[65] 우리는 이와 같은 가부장적 문화와 함께 유교적인 영향 하에서 살고 있다. 한국인에게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유교라고 답하는 사람은 단 2%에 불과하지만 유교적 가르침을 실천하겠는가라고 물으면 90%이상이 그러겠다고 응답한다.[66]

강남순은 이런 유교적 영향에 대해,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를 언급하면서 일생 동안 한국 여성의 의무는 세가지 였는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의 죽음 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덕 있는 여성의 길이었다고 한다.[67] 이런 문화의 영향 아래 한국 여성들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 나가기가 쉽지

---

[64] 김필진, "여성의 전인치유를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8 (2006): 67.

[65] Mary Riley, *Women, Carriers of a New Vision* (Occasional Papers, Washington D. C.: Concern, 1984), cited in 김필진, 67.

[66] 최준식, *한국종교이야기* (서울: 한울, 1995), 92.

[6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41-42.*

않았을 것이다. 강남순은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모의 역할과 지위에 끼친 위계 구조의 악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여성은 한 사람의 개체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간주되었고, 이러한 위계주의적 관계주의로부터 구성된 인간 이해는 교회 안에서도 부인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보다 높으면 안되며, 남편이 지도력을 행사할 때 부인의 지도력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한국적'인 미덕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의 부인은 교회에서 가장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도 교회의 구성원도 또는 지도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서 그가 하고 있는 수 없는 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혀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68]

강남순이 지적하는 것처럼 목회자 사모는 목회자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서 다양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왔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여 왔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도 연결되는 데,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목소리의 정의를 길리건(Gilligan)은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사람들이 '목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좀더 반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목소리를 통해서 의미하는 것은 자아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목소리는 본성적인 것이고 동시에 문화적인 것이다. 그것은 숨결과 소리, 단어, 리듬 그리고 언어로 구성된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이며 통로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목소리는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질서를 이해하게 해 주는 새로운 열쇠 – 인간관계의 리트머스 테스트이며 심리적 건강의 측정 기준– 라고 볼 수 있다.[69]

목소리는 관계를 통한 정체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주체로서 인정받지 못하고있다고 생각하면 정체성에 치명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반면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주체로서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때 건강한 정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

[68]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124.

[69] Carol Gilligan, 19.

목회상담가인 크리스티 코자드 뉴거(Christie Cozad Neuger)는 목소리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를 연결시키는 강력한 심리적 도구라고 하였다.[70] 그녀는 상담을 통해 사회문화적 규범 속에 깊이 자리 잡고있는 여성들에 대한 억압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인식을 통해 스스로 보다 만족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71]

과연 사모들은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있을까? 교회라는 구조적 여건으로 볼 때 사모가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사모는 어떤 목소리를 내고 싶어할까? 그 내면에서 혼자 독백하는 목소리는 무엇일까? 사모의 목소리를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교회 구조와 여건이 형성될 때 사모의 주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목소리는 자신의 주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결정체이다.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친밀감을 나누는 매개체가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상실했다면 건강한 주체성을 가질 수 없다. 이와 같이 사회구조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차별로 인한 인간의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페미니스트 담론은 계속 진행되고 발전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페미니스트 신학자인 강남순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사실은 '너는 누구인가?'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이 세계 내의 현존은 결국 사회-정치적 의미에서의 함께-존재(being-well)하는 의미를 지닌다.[72] 이런 의미는 참으로 놀라운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단지 실존적인 문제라고 만 생각할 수

---

[70] Carol Gilligan, *다른 목소리로*, 19.

[71] 신송이, "집단이야기치료를 통한 양육초기여성의 정체성 변화 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7), 234.

[72] 강남순, *코즈모폴리턴니즘*, 45.

있는 정적인 개념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너라는 정체성'과 함께 관계하므로, 사회-정치적 의미로 확장되어 동적인 개념, 구체화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점은 현대 페미니즘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나는 평가하고 싶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우리가 왜 페미니즘의 지속적 운동과 발전이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그리고 먼저는 페미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거부감을 극복해야 되는 것도 현대 페미니스트의 숙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진행되어가는 페미니즘의 연구가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변화를 주면서 진행되어가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체성과 주체성을 그리고 여성주의와 페미니즘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B. 페미니즘(feminism)의 흐름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페미니즘 학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중에서도 여성철학자 아이리스 마리온 영(Iris MarionYoung)과 프랑스 페미니즘 학자인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는 여성 정체성을 근거로한 페미니즘을 3 세대로 구분하여 각 세대가 여성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1. 제 1 세대 페미니즘

영(Young)은 프랑스 혁명 이후 계속해서 여성평등을 외치던 페미니스트들을 페미니즘 1 세대로 본다. 이런 의미에서 영(Young)은 1 세대 페미니즘을 '인간주의적 페미니즘(humanistic feminism)'으로 설명한다.[73] 1 세대는 여성평등이나 인간 평등을

[73] Iris Marion Young, "Humanism, Gynocentrism and Feministic Politics," *Hypatia* 8, no.3 (1985): 173.

주장하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또는 사회주의 이론과 결합했다.[74] 그러므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테바(Kristeva)에 의하면 제 1세대는 "아버지의 시간" 에 따라 히스토리를 정립하고자 하나 그 과정에서 여성의 차이를 배제하게 된다.[75] 크리스테바에게 "아버지의 시간"이란 "직선적인 그의 역사 또는 흘림체의 시간" 이다.[76] "아버지의 시간"은 "시작, 진보 그리고 도착의 시간"이며 이는 곧 "계획, 목적에 따라 직선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전개"된다.[77] 즉, 역사(history)라는 단어의 어원이 히스토리(he-story)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시간이란 인간의 역사 과정이 남성이 주체가 되어 계획하고 진행되며 목적에 따라 남성위주로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78]

이를 근거로 1세대 페미니즘은 "동일화 논리(logic of identification)" 를 사용하여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히스토리의 주체로 정립한다. [79]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 주체이므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 인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여성은 내부적으로도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사회적, 계급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여성들은 "여성(Women)"이라는 이름으로 보편화된다. 따라서 크리스테바(Kristeva)의 1세대 비판 역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첫번째 차원은 여성이 "그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면 그에 의해 파악될 수 없는 여성의 차이는 무시되거나 평가절하 된다. 두번째

---

[74]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 (서울: 책 세상, 2007), 36.

[75] Julia Kristeva, "Women's Time," in *The Kristeva Reader*, ed. Toril Mo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192.

[76] 이현재,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 헤겔 변증법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 *시대와 철학* 16, no. 1 (2005): 66.

[77] Ibid.

[78] Ibid., 65.

[79] Julia Kristeva, 194.

차원은 그러므로 1세대 페미니즘은 여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과 차이를 무시함으로써 모든 여성이 동일해야 한다는 여성보편화라는 폭력을 행사하게 될 수 있다.[80] 이현재는 영화 잔다르크의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 잔다르크는 프랑스 역사를 구하는 영웅적 인간 주체로 서고자 했다. 그러나 인간 주체가 되기 위해서 그녀는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가? 프랑스를 통일하고 프랑스 국민을 폭압에서 해방시키는 역사의 주체로 서기 위해 집을 떠나 바지를 입고 긴 머리를 자른다. 어느 누구도 치마 입고 긴 머리를 한 여성으로서의 잔 다르크를 인간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임무를 수행하는 인간 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여성성을 가차없이 버려야 했다. 그렇다면 여성성을 버려야만 인간이 될 수 있는 것인가?[81]

이러한 의미에서 1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인간으로 차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남성화하여 여성상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는 오류를 범한다. 다시말하면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남성처럼 살 때 남녀가 평등하며 남녀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남성주의, 즉 여성을 남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이념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여성의 정체성을 남성의 정체성에 맞추려고하는 시도가 되므로 남성이 결국은 우월하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즉, 1세대 페미니즘은 남성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여성의 남성화를 통해 차별을 극복한다는 이론으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여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 가지 오류가 있으므로 사모들의 자아정체성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론이다.

---

[80] 이현재,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 헤겔 변증법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 *시대와 철학* 16, no. 1 (2005): 66.

[81]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 39.

2. 제 2 세대 페미니즘

크리스테바(Kristeva)에 따르면 2 세대 페미니즘은 그녀의 이야기(her-story), 즉 '여성의 시간'이라고 정의한다.[82]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데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적인 것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규범적 정체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즉 그는 여성적 가치 체계가 "남성적 가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83]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영(Young)은 2세대 페미니즘을 '여성 중심적 페미니즘'라고 정의한다.[84] 2세대 페미니즘은 두 가지의 견해로 나뉘어지는데 첫번째 견해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정체성에 주목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속하는 이론가는 여성의 역할이나 모성을 남성과 다른 여성의 정체성으로 보고 이러한 가치를 통해 페미니즘을 해석한다.[85]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견해가 이 입장에 속한다. 이들은 미국의 관계 이론가들로서 관계이론이란 아이의 정체성이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며 이러한 점에서 독립이나 자유보다 타자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86]

사모들의 정체성은 객관적으로 '사모들의 헌신적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길리건(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가 사모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어떤 연관이 있으며 길리건(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다음 장에서 길리건(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에 대해 자세한

[82] Julia Kristeva, 194.
[83] Ibid., 192.
[84]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 40.
[85] Ibid., 43.
[86] Ibid.

이론적 배경을 제시할 것이다. 두번째 견해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여성임에 대해서 어떤 본질적 규정을 하지 않고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은 보편적 개념으로 인식할 수 없는 파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87] 위에서 언급한대로 크리스테바(Kristeva)는 여성적인 가치 체계를 "남성적 가치 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양립 불가능한"[88] 것으로 간주하므로 여성의 시간은 그 자체로서 남성의 시간과 구별될 뿐 어떠한 하나의 일관적인 원리로 파악될 수 없고 부정적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즉 여성적 시간의 차별성은 남성적 시간과 "동일하지 않다(nonidentity)"는 말로만 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89]

> 뤼스 이리가라이(Lucd Irigaray) 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
> 남성과 똑같아지려는 평등을 추구하는 기존의 페미니즘은 아편과 다름이 없고 결국 종족 말살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여성과 남성의 각각 다른 차이를 인정한 뒤에 여성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와는 다른 차이가 인정되는 '너'가 존재할 때 비로소 '우리'도 존재하게 된다.[90]

이에 대해 크리스테바(Kristeva)는 제 2세대의 운동을 "편집증적 운동"이라고까지 표현한다. 제 2세대는 자신이 희생양이었다는 것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함으로써 또 하나의 희생양을 양산했다는 것이다.[91] 남성과 동등한 평등을 요구하는 1세대 페미니즘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2세대 페미니즘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

[87] Ibid., 45.
[88] Julia Kristeva, 192.
[89] 이현재,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67.
[90] Lucd Irigaray, *나, 너, 우리*, trans. 박정오 (서울: 東文選, 1996), 140.
[91] Julia Kristeva, 192.

출발되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제 2세대 페미니스트인 쥬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젠더 트러블(Gender Trouble)*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 핵심적인 사상은 페미니즘의 주체로서의 '여성들'은 아무리 복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도 범주화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섹스/젠더/섹슈얼리티를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성/문화적으로 구성된 성/근본적이고 기원적인 욕망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강압적 질서에 따르는 것…[92]

다시 말해서, 보편적 인간 주체를 거부하려는 2세대의 페미니즘은 모든 것을 타자화하고 파편화 함으로써 어떤 것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게 하는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버틀러는 누구보다도 여성의 분열과 파편화를 강조한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다.[93] 버틀러는 "젠더의 위치를 근본적인 정체성의 환영으로 정해두어서 젠더가 자기 위치를 지키게 만들고자 하는 바로 그 구성적 범주들의 동원과 전복적 혼란과 증식을통해 젠더에 트러블을 만드려는 노력으로 계속된다"[94]라면서 본인의 젠더트러블에 대한 정당화를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젠더를 구성화하고 고정관념화를 통해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타당한 이론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조혜자는 젠더 범주화에 대한 폐해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젠더 범주는 인간 범주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범주이므로 일찍부터 구별해 내고, 그에 부착된 성별 고정관념은 일찍부터 내면화되어, 뒤늦게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자신에게 무늬처럼 박혀서 자신을 정의하는데 자동으로 영향을미치게 된다. 그러나 젠더 범주는 여성과 남성에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 더 현저하게 작용해 왔다. 젠더범주의 활성화는 고정관념을 불러일으키고…[95]

---

[92]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2008), 9.
[93]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 45.
[94] Butler, 149.
[95] 조혜자, "젠더 범주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연구* 8 (2005): 66.

이처럼 젠더의 범주화는 남성보다 여성의 정체성에 더 많은 피해를주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인 사모들의 각성과 교회의 각성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3. 제 3세대 페미니즘

제 3세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여성의 정체성은 "여성성의 배제"를 통해서도 "남성성의 배제"를 통해서도 아닌 "배제하지 않음"의 정신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96] 즉 제 3세대 페미니즘의 핵심은 배제하지 않음, 즉 배제의 논리를 극복하는 데 있다.[97] 크리스테바(Kristeva)는 "배제하지 않음"이라는 소극적 개념을 넘어 "병존(the parallelexistence)"이라는 적극적인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의미는 여성성도 남성성도 서로가 배제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적극적인 의미로 서로 병존하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공존의 관계를 의미한다.[98] 이현재는 병존의 관계를 1, 2, 3 세대 페미니즘이 모두 동일한 그의 역사 안에서 병존하거나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99] 제 3세대 페미니즘에서는 이와 같은 논리를 근거로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병존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병존의 시간'속에서 서로 배제하지 않고 존재해 나갈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페미니즘이란 남녀의 차별을 기초로 이루어진 운동이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차별에 대한 고발의 메시지라고 나는생각한다. '여자도 인간이다'라는 명제는 '모든 사람은 인간이고 평등하다'라는 명제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 모두가 각자

[96] 이현재,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68.
[97] Ibid., 47.
[98] Ibid., 68.
[99] Ibid.

자신의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고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 한다. 사모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 없는 대상이다. 교회라는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틀안에서 갇혀있는 사모의 상은 사모들을 힘들게 하고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사모도 인간이고, 교인들과도 평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나는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에서 찾으려 한다.

C. 코즈모폴리터니즘(Cosmopolitanism)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는 용어의 어원은 그리스 스토아학파 철학자인 디오게네스(Diogenes of Sinope)가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상식적인 답변에 '아테네'에서 혹은 '시노페'에서와 같이 자신이 태어난 도시 이름을 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우주의 시민이다(I am a citizen of the cosmos)라고 대답한 것으로부터 코즈모폴리턴 사상이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100] 그는 자신의 출생지를 답하지 않고 왜 코스모스에서 온 시민이라고 답했을까? 미국에 살면 특히 외국인들에게 받는 흔한 질문 중의 하나가 너는 어디서 왔는가라는(Where are you from?) 질문이다. 얼마전 뉴욕을 방문했을때도 한 외국인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고 대답했지만 그가 다시 질문했다. '너의출신 나라가 어디냐?'(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라는 질문이었다. 이처럼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 물어보는 의례적인 질문이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이다. 출생지나 거주지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좁은 땅을 가진 한국에서도 태어난 장소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 K 지역에서 태어났으면 '남자는 무뚝뚝하고 여자는

[100]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귀환," *기독교사상* 663 (2014): 201.

거세다'라는 통념이 있다. J 지역에 대한 편견은 더 심한 것 같다. 이처럼 나는 개인의 정체성을 태어난 장소로 규정짓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나의 출생지는 서울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은 받지 않고 살았던 것 같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감정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살아왔고,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사람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로스엔젤레스에 살고 있으면서, 동일한 지역감정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한인사회나 교회에서 자주 듣고 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처럼 출생지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내제되어 내면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같이 태어난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디오게네스의 대답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코스모스(cosmos)는 우주를 뜻하는 그리스어(κόσμος)에서 온 단어로서, 고대 그리스의 우주관에서 비롯한 우주의 철학적 개념이다.[101] 철학자의 대답의 모호성은 칼 세이건(Carl Edward Sagan)의 *코스모스(COSMOS)*라는 책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Carl Edward Sagan)은 코스모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코스모스(COSMOS)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102]

이 책을 대면하면서 나에게 코스모스에 대한 개념이 가슴으로부터 와 닿는 느낌이 들었다. 우주 천체 중에 떠도는 한 별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들이라는 표현을 마주하면서, 나에게 사람이라는 존재- 내가 알고 있던지 모르고 있던지- 가 한 행성 위에 존재하며 서로가

---

[101] 코스모스,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C%8A%A4%EB%AA%A8%EC%8A%A4, *Wikipedia* (Accessed March 24, 2018).

[102] Carl Edward Sagan, *COSMOS 코스모스*, trans. 홍승수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0), 7.

얼마나 소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출생지의 근원을 따져가며 맺어지는 근시안적인 안목이 아니라 우주의 시민으로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시안적인 안목이 열렸다. 우주시민은 하나이다. 점 같은 한 행성에서 서로 부딪치며 호흡하며 관계를 맺는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생각을 해 본다. 그러기 때문에 스쳐가는 어떤 사람도 관심을 갖고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강남순은 '나는 우주의 시민이다'라는 디오게네스의 대답을 두 가지 답, 즉 자신이 태어나거나 소속된 지리적 공간, 그리고 동시에 모든 인간이 사실상 '우주'에서 온 존재라는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인간의 '소속'

에 대한 이해를 확장했다는 의미에서 그 철학적 의미가 부상했다고 설명한다.[103] 여기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기원을 알 수 있다. 그럼 코즈모폴리터니즘에서는 나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1. 코즈모폴리터니즘 정체성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코즈모폴리터니즘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의 물음이 사실상 "너는 누구인가"의 물음과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곧 나는 이 세계 내의 "현존"(Dasein)이란 결국 사회-정치적 의미에서의 "함께-존재"(Mitsein/being-with)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에 이르게 되었다.[104]

이 의미는 나라는 정체성은 한 국가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주의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짐으로 인해, 나와 너가 서로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제 3세대 페미니즘의 명제인 배제하지 않음, 즉 배제의 논리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를

[103]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귀환," 201.
[104] 강남순, "이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사상* 66 (2014): 259.

너에서 찾는 정체성은 곧 우리라는 범주를 구성하며 그 범주는 우주가 된다. 우린 세계 시민(cosmos sitizen)[105]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세계관으로 바뀌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교회안에서 사모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될까? 내 안에서 사모의 정체성을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한 대답을 강남순에게서 찾을 수 있다.

> 세계시민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보다 더 나은 세계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식수와 최소한의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아이들, 적절한 의료시설이나 약이 없어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연민과 돌봄의 손길은 어느 한 단체만이 아니라 인류 모두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들이 어느 나라 국민이든 종교를 믿든, 어떤 인종/민족에 속하였는지에 상관없이 살아 있는 인간은 단지 생명을 지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바로 이러한 관점이 코즈모폴리터니즘에 근거한 인간 이해다.[106]

생명을 지닌 우리 모두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형상(이마고 데이)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107] 우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의 소중함,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서로간의 다른 의견도 존중하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으며, 사모에 대한 이해나 인식도 달라질 것이다. 사모는 목회자의 아내이기 전에 사모 스스로 규정지을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 이해되야 한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사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000 목사의 사모라는 식으로 불리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를 나타내는 정체성 중의 하나인

---

[10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9.

[106]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8.

[107] 이마고데이(Imago Dei)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로 여자로 창조하시고"(창 1:27)를 근거로 연구되었으며, 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의 자아정체성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되어있다.

이름마저 잃어버린 사모에게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코즈모폴리터니즘 정체성이 교회 내에서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다.

강남순은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정체성의 정치학이 지닌 독특성은 이제까지 연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사회의 소외된 집단이 타자에 의하여" 말해지는 객체"(spoken object)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하는 주체"(speaking subject)로 자신의 사회-정치적 자리매김을 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이 지배 집단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이 아닌 "자기 스스로 주장하는 정체성"으로 전이된다.[108]

이런 인식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사모들도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 의해 외부로부터 결정되어진 정체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많은 사모들도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사모의 하소연을 들은 기억이 난다. 밝고 명랑한 성격의 사모로 가정에서 자녀 양육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녀는 교회만 가면 불편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했다. 개척교회 담임목회자 사모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자신이 능력도 없고, 잘 할 수도 없어서 교회에만 가면 위축되었다고 한다. 교회에서는 전혀 '나답지 않은 다른 나'와 마주치면서 힘들어 하던 사모의 어려움을 오랫동안 지켜보던 남편인 담임목사는 목회를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 정체성을 이루어 나가는 유기체적인 존재라는 코스모스 시민의식이 교인들이나 교회에서 인식했었다면 긍정적 방향으로 함께 공존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든다. 교회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정체성을 이해 한다면 사모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주체로서의 사모라는 인식으로 변혁이 될 것이다.

---

[108] 강남순, "이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260.

2. 기독교와 코즈모폴리터니즘

성경은 코즈모폴리터니즘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수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109]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담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계명으로 다가온다. 마태복음 22 장에서 39 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부탁을 우리에게 하신다. 그 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사랑은 스피박이 말하는 행성적 사랑(planetary love)[110]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강남순은 스피박의 '행성적 사랑'개념과 관련된 연구서들을 찾아 읽다가 만난 것이 '코즈모폴리터니즘'이라고 했다.[111]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나는 코즈모폴리터니즘 사상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교훈의 메시지라고 생각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자신사랑', '이웃사랑'이다.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보여진다. 강남순은 "여기서 이웃사랑은 타자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의미를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담고 있는 타자에의 책임성의 의미까지 짚어내야

---

[109] 개역개정, 본 논문의 모든 성경인용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한다.

[110] 철학자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이 이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담론으로 행성적 사랑을 꼽았는데, 이 행성이라는 말은 지구와 구분하여 사용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개념이다.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8-9.

[11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9.

한다"[112] 고 규정한다. 그러면 타자에 대한 책임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타자에 대한 관심, 배려, 그리고 구체적인 돌봄 등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고 이웃사랑의 표현이다. 그런데 반대의 개념인 무책임성의 결과 중 하나는 소문이라고 생각된다. 교회 안에서 떠도는 많은 소문은 바로 책임성이 결여된 결과이고, 이웃사랑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목회상담을 받으러 오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다른 교회의 교인들이다. 그들이 소속교회의 목회자에게 상담받고 싶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가 '소문이 날까봐' 라고 말한다. 교회에서는 교인들에 관한 소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사모들도 소문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있다. 나는 A 교회의 사모가 교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터 놓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소문이 되어서 사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이웃사랑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타자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이다.

3. 예수의 이웃사랑과 코즈모폴리터니즘

코스모폴리터니즘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 예수의 이웃은 나의 가족, 동족을 너머 이방인이라고 생각되는 타민족, 타문화 권에 있는 모든 자들-곧 세계시민(cosmos citizen) 이라고 생각된다. 예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소외된자, 고통받는 자의 상징인 강도만난 자[113]의 이웃이 되라고 명하신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

[112] 강남순, "탈정치적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기독교사상* 667 (2014): 223.

[113] 예수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율법교사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 사람이 지나갔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지나갔고, 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자비를 베푼다면 누가 강도만난자의 이웃이냐라고

> 한 사람의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등의 경계를 넘어서는 이 '모든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라는 '이웃 사랑-원수 사랑'이라는 예수의 강력한 윤리적 명령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비유에서는 그 당시 가장 '대립적 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과 그 당시 "이방인/비 이웃"으로 간주되는 사마리아인이 함께 등장한다. 현대적 정황에서 보자면 종교, 인종, 성별, 계층 등 다양한 범주들로 나뉜 사람들을 모두 나의 "이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이다.[114]

이처럼 예수의 이웃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초월적인 사랑이다. 이와 같은 초월적인 사랑은 세계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서 사회로, 국가로 흘려 보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웃사랑이 흘러 넘칠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원수 사랑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의 이웃 사랑은 경계를 넘는 사랑으로 묘사된다. 예수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태복음 5:43-44) 라고 말씀하신다. '이웃을 너머 원수까지 사랑하라'시는 말씀이 바로 코즈모폴리터니즘 사상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지닌 무수한 가능성과 잠재성을 키워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나 자신이 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을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무수한 타자들 속에서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웃-원수-사랑'의 명령은 나 자신과 같은 '동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동질성을 넘어 '다름(alterity)을 지닌 사람들에게까지 이웃 사랑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115]

율법교사에게 반문하시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답하자, '너도 이와 같이하라'라고 말씀하신다(눅 10:30-37).

[114] 강남순, "탈정치적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227.

[11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1.

우리 사회는 '다름(alterity)'에 대해 배타적이다.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해서 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이면 서로 공통점을 찾으려고 애쓴다. 같은 성, 같은 고향, 같은 학교 출신일 때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공통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다.

나에게도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삶에서 적용되는 데에는 거리가 있다. 나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속성이 바로 고정관념(streotype)[116]이라고 생각된다. 고정관념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몇번 언급했듯이 나의 고정관념은 이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나의 고착화된 생각들을 허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의 고착화된 사고를 깨달은 이후에는 사고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목회자, 사모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교인들도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사모를 힘들게 하는 가장 커다란 요인이 교인들의 고정관념이다. 교인들은 사모에 대해 자신이 고정관념으로 그려놓은 사모상이 아닐 경우에는 나쁜 사모가 된다. 사모가 하는 행동이 맘에 들지 않아서 사모와의 관계도 결국은 깨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못한 결과이다. 하지만,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의 정체성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서로를 존중해주어야 한다. 또한 서로간의 권리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타자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116] 고정관념이란 오랫동안 깊이 형성된 생각의 틀로서 한번 형성된 지식의 틀이 굳어져서 좀처럼 변하지 않고 고착화되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것을 그렇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 한번 형성된 편견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면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 강민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한 방향," *비평문학* 45 (2012): 212.

사랑해야 하는 우주의 시민 의식을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신다. 교회도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이해가 이루어질 때 교인들도 타자에 대한 책임의식이 확장되어서 차별받는 인종, 계층, 성별 등에 대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웃사랑의 전제조건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강남순은 누구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탄생성', 즉 '네이털리티(natality)'[117]라고 규정한다.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 따르면 "이웃 사랑이란 타자를 모털리티(mortality), 즉 절멸성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 속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118] 는 것이다. 여기서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서 한 사람 속에 있는 영원한 것이란 모털리티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 태어남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네이털리티'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나 자신은 물론 타자도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119] 나의 정체성과 너의 정체성은 고정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고 변혁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나도 본 논문프로젝트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중이다. 결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될 수 없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논문 준비하기 전에는 정체성이

---

[117] 죽음의 운명성, 인간의 절멸성을 '모털리티'(mortality)라고 한다면, 반대로 누구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탄생성'은 네이털리티(natality)라고 한다. 모든 인간은 바로 이 '네이털리티'를 지니고 있는 존재다. 네이털리티를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출생' 또는 '탄생'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심오한 네이털리티의 의미를 단순화하기 때문이라고 강남순은 밝힌다.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3.

[118] Hannah Arendt, *Love and Saint Augustin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96), 96.

[119]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4.

변화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다. 역으로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웃의 정체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웃사랑이란 정체성의 새로 태어남을 인정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강남순은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120]에서 다시 태어남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 예수의 '다시 태어남'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다시 태어남', 즉 새로운 네이털리티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막중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 이와 같은 이웃 사랑에서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과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의 우선적 '전제조건'은, 나와 타자 속에 존재하고 있는 네이털리티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다. 이 가능성으로부터 이웃사랑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다.[121]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가르침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타자가 새롭게 탄생되어 가는 과정 중이라는 것, 즉 네이털리티를 이해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확장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한다. 어제의 나와 너가 오늘의 나와 너가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제의 실수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사모들이 교회에서 교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가 쉽지 않다는 고백을 종종 듣는다. 사모 자신의 실수나 허물이 교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모나 교인들이나 내일의 우리는 또 다른 네이털리티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되면 서로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이다.

---

[120]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1-3).

[12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17.

결론적으로 , 예수의 이웃사랑은 국적이나 인종, 종교 등 모든 차별을 너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우주시민의 의식이다. 그리고 나와 너는 늘 새로운 네이털리티로 거듭나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곧 예수의 코즈모폴리터니즘 사상이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첫걸음이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에 대한 시선이다. 강남순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 지를 비판적으로 점검해보고 새로운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122] 이 시선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포즈모폴리턴 시선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중심과도 잘 맞닿아 있다고 강남순은 설명한다.[123] 그에 의하면 바로 예수가 모든 사람들을 향해 보인 '연민의 시선'이다.[124] 예수의 연민의 시선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연민의 시선이 바로 코즈모폴리터니즘 시선이다. 강남순은 연민의 시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 타자에 대한 "연민적 시선"이란, "연민"의 영어개념이 지시하듯 "함께 고통을 받는 것"(com-passion)을 의미하는 것이며, 타자의 존재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인하여 끊임없이 "방해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상 "예수의 시선을 배우는 것"이라고 본다. 예수의 시선이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시선"이 아닌가.[125]

결국 예수의 연민의 시선과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시선은 일치한다. 서로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랑, 끊임없이 부딪치며 서로 방해받고 방해당하는 관계이지만,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모습을 인정해주며 용서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연민의 시선이고

---

[122] Ibid., 131.

[123] Ibid.

[124] Ibid.

[125] 강남순,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2014, 08): 235.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시선이다. 이 연민의 시선은 이웃사랑을 행동화 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D.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

본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페미니스트 신학자이고 관계이론가인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에서 강조하는 여성의 친밀감을 근거로 사모들에게 여성의 친밀감과 사모들의 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했다. 길리건(Gilligan)은 상이한 두 가지 관점 –여성의 관점과 남성의 관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으로 성숙된 도덕적 관점이라고 주장한다.[126] 하지만 구두시험과정에서 길리건(Gilligan)의 이론의 타당성이 문제가 되었다. 교수위원회의 지적대로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체성을 구별하는 것은 본질론적인 오류라는 것이다. 나는 페미니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나의 내제된 내면화가 맞부딛치는 갈등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고정된 자아로 구별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은 페미니즘 이론의 배경에서도 언급되었다. 이경식에 의하면, 오히려 여성과 남성간 서로 같은 점이, 상호 다른 점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한다.[127] 여성과 남성을 본질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많은 편견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남녀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길리건(Gilligan)의 연구가 이루어졌을까? 그 연구의 출발은 자아정체성의 형성과 관련된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126] Carol Gilligan, *In a Different Voice 다른 목소리로*, trans. 허란주 (서울: 동녘, 1997), 38.

[127] 이경식,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and Pastroral Counsling independent study, Mar. 2018.

발달 이론[128]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다. 각 주에서 설명한 것처럼 콜버그(Kohlberg)의 이론은 정의를 근거로 한 도덕적 단계를 6단계로 구분하여서 볼 때, 남성들은 도덕적 성숙의 단계인 5, 6단계에 이르지만 여성들은 대부분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3단계에 머무른다는 결과이다. 길리건(Gilligan)은 콜버그(Kohlberg) 이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콜버그의 이론은 남성 피험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콜버그가 사용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은 가설적이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의 도덕적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도덕적 딜레마 상황의 주인공들은 모두 남성들이기 때문에 소년과 남성들에게 더 친근하다는 것이 문제다.[129]

이러한 관점에서 길리건(Gilligan)은 실생활에서의 도덕적 추론문제의 연구를 위해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여성들을 인터뷰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낙태 상황은 도덕적-윤리적인 문제로써 여성들에게 갈등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의 한 영역이므로 선택되었으며, 인터뷰 결과 길리건(Gilligan)은 콜버그(Kohlberg) 이론의 전 인습적, 인습적, 그리고 후

---

[128] "로런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는 정의(justice)의 원리를 근거로 도덕적 사고의 6개의 발달단계(發達段階)를 말하는데, 6단계에서 행위자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보아 스스로 채택한 보편적 도덕 원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채택하는 기준은 논리적 일관성, 보편성 등이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는 궁극적으로는 만인의 권리에 대한 평등성과 상호성을 보장하는 보편적 정의의 원리라고 설명한다. 즉 이 단계에서 도덕적으로 성숙한 행위자는 정의의 원리를 자신의 최고 행위 원리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콜버그(Kohlberg)의 입장은 보편적인 적용성을 가진 발달 이론으로서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6단계에 이르러야만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연구 결과를 통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보았을 때 5단계나 6단계에 이른 경우는 대부분 남성들이었고, 많은 여성들은 3단계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말한다. 즉 콜버그의 분석에 의하면 많은 여성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나 집단의 기존 가치들에 순종하고 기존 체제를 유지하라는 주입(注入)을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Willian C. Crain, *Theories of Development 발달의 이론*, trans. 서봉연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3), 174-84.

[129] 장휘숙, *여성 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6), 74.

인습적 수준과 일치하는 도덕적 추론 단계를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현상은 여성들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다는 희망을 피력했으며, 여성들은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우선시 하고 개인의 주장들을 인간 관계의 그물조직 속에 포함시켜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130]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길리건(Gilligan)은 여성에게 주된 도덕적인 문제는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간의 충돌의 문제라고 보았으며, 결국 여성들은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적용하기 보다는 상호간의 조화를 위한 타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131]

길리건(Gilligan)의 연구는 도덕성 성향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열등하다는 콜버그(Kohlberg)이론에 대한 반론이다. 길리건의 연구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고정된 관념으로 나누어서 연구되어진 점에서는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하지만, '돌봄'과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단지 여성뿐 아니라 남녀 모두인 인간의 정체성이라는 확대개념으로 볼 때 유용한 연구였다고 본다. 즉 길리건(Gilligan)의 주장에 대한 나의 견해는'나'와 '너'라는 서로 다른 정체성의 관점으로 구별된 둘 사이에 어떠한 화해점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나아갈 때 상호평등하며 상호친밀한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안에서의 갈등도 불평등과 편견의 문제에서 일어난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 인간에게는 돌봄과 친밀함의

---

[130] Carol Gilligan, *다른 목소리로*, 241.

[131] Ibid., 310.

관계를 통해 성숙한 도덕적 가치를 이루려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길리건(Gilligan)이 발견하였는데, 나는 이것이 길리건(Gilligan)의 큰 공헌이라고 생각한다. 교회내에서도 서로의 다른 정체성을 인정해주면서 돌봄과 친밀함으로 서로가 배려하는 관계로 발전될 때 교회의 갈등과 반목이 줄어들 것이다.

E. 한국교회사에서의 페미니스트 신학

페미니스트 신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경의 부정적인 여성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이며 남성 중심으로 구축된 신학과 철학의 거대 담론에서 비롯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이다. 예를 들면, 성경의 대표적 여성 인물인 이브에 대해서는 인류를 죄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인식하고 마리아의 상징은 복종과 희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문명의 근원은 호기심에서 생겨났듯이 이브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다. 또한 마리아의 이미지가 복종과 희생이지만 마리아 찬가를 보면 억압적 구조를 넘어서는 전복자, 혁명가의 이미지를 볼 수 있다.[132] 그러므로 강남순은 기독교 전통과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의 범주에 여성을 포함시키지 않아 왔다는 것이 여성신학의 핵심적인 비판적 논리라고 설명한다.[133]

한국교회사에서 페미니스트 신학의 출발점은 김윤옥이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남성들의 역사, 특히 지도층 남성들의 역사로 이루어져 왔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134]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사상과 합류하면서 여전히 남성

[132]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강의 내용 (2016.1.6).
[133]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04.
[134] 김윤옥, *한국여성신학의 현단계, 여성, 평화* (서울: 평화사, 1992), 187.

우월주의가 교회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135] 처음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 서구 문명과 함께 들어온 한국의 기독교는 남성, 여성, 양반, 상민 모두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창조하셨다는 획기적인 평등 사상을 전하였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도 당시 가부장적인 유교문화로서 남존 여비 사상, 양반과 상인의 계층 구별이 명확했던 그 당시 계급사회에서는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여성들에게도 기독교의 영향으로 유교적 억압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의 기회가 주어졌고, 사회적인 여성의 활동과 교회 내에서의 활동도 가능해 졌다. 하지만 기독교사상이 커다란 유교문화의 벽을 허물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숙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의 선교대상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거나 억압당하고 있는 여성, 즉 주변인 집단이었다라고 한다.[136] 이유는 이러한 주변인 소수자들은 지배체제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차이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간은 적당한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의 공간으로 전환되어서 새로운 선교 공간인 해방의 공간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한다.[137] 즉, 선교사들은 그 당시 여성에 대한 개념이 소외된 사회의 최하층 집단이었고 경제적, 성적으로 주변인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 기독교 교육 목적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교과목에는 공통적으로 한문, 한글, 가사에 필요한 재봉, 요리 등을 가르쳤다는 것은 여성 교육의 형태가 유교적 관습에서 유래된 남녀 사이의

[13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122-23.
[136] 이숙진, *한국기독교와 여성 정체성* (서울: 한들출판사, 2006), 59.
[137] Ibid., 58-59.

역할 분담의 차별성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다.[138] 이에 대해 강남순은 기독교가 한국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타협하면서 여성교육의 목표가 한 인간으로서의 자기 개발이 아닌 단지 현모양처를 양성하는 것이었으며, 교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적 위계 구조를 고착시키기 시작했다[139]고 주장한다.

또한 한국 페미니스트 신학은 서구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난과 질병 그리고 억압이라는 고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 억압의 기본구조가 사회 전체의 구조와 별개로 생각될 수가 없다.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보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140] 이 구조는 문화, 고정관념, 편견, 선입관, 통념, 사회적 제도가 모두 포함된다. 박정미와 박정해의 관점을 김정수의 시각을 빌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 페미니스트 신학은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특수성과 빈곤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한국 여성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것이다. 김정수는 1990 년 12 월 14-20 일 동안 인도의 마드리스에서 열린 아시아 7 개국 여성신학자모임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한다.

> 가난한 민중 여성들이야 말로 한국 여성 일반이 당하는 성 차별의 경험뿐 아니라 민족적, 계급적, 분단 구조로 인한 억압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 여성 신학이 말하는 일반 여성의 경험으로부터의 출발과 달리 한국여성 신학은 민중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한다.[141]

---

[138] 노영숙, "초기 선교사들의 기독교교육관과 이 시대 기독교학교 교육의 미래적 대안," *종교연구* 65 (2011): 221.

[139]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123.

[140] 최만자,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100.

[141] 김정수, "한국여성신학의 해석학," in *여성 평화* 2 (서울: 평화사, 1990), 229-51, quoted in 최만자, 100-1.

나는 이런 측면에서 한국 페미니스트 신학이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았거나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통의 관심 때문이다.

한국의 페미니스트 신학이 민중신학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예는 이우정이 언급하는 구비문화-민담, 민요, 전설, 신화, 무가, 속담 -속에 나타나는 여성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142] 즉 그는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 역사 속에서 비인간화 되어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식함으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 자연스럽게 가부장적인 사상과 합류하여 여전히 강력한 남성 우월주의가 교회에 압도적이라는 것이다.[143] 이런 특수한 요인들이 한국의 기독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서구의 기독교보다 더 남성중심주의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사모들의 자아정체성을 들여다 보면 단지 남편 목회자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 받은 존재라는 의미로 강남순은 해석한다.[144] 강남순은 사모들의 왜곡되고 종속된 존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교회의 담임자의 부인은 교회에서 가장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도 교회의 구성원도 또는 지도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서 그가 하고 있는 수없는 일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전혀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 자발적 희생이나 봉사와 관습적으로 강요된 희생과 봉사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예들은 여성들의 삶에서 무수하게 찾아 질 수 있다.[145]

---

[142] 이우정, "한국 속담과 여성의 비인간," in *한국여성 신학의 과제*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의회, 1983), quoted in 최만자, 240-41.

[143]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122-23.

[14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124.

[145] Ibid., 124.

실제로 사모들의 사역은 정말 다양하다. 음악을 전공한 C 사모는 반주자가 부재 중일때는 자신이 직접 반주를 해야하며, 성가대 지휘자가 공석일때는 자신이 직접 지휘도 해야 한다고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교회 안내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 손이 필요하면 교육부 사역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주방에 일손이 부족하면, 주방에서 친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정신없이 주일을 지내다보면, 정작 경건하게 드려야 할 예배를 가장 소홀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고백을 그녀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 이와같이 아무런 보상도, 댓가도 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바로 사모들이다. 사모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당연히 사모는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의 인식이다. 그리고 그 인식이 교회의 문화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런 고착화된 교회 문화는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바꿔 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교회 문화의 결과로써, 사모들은 교회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수자이자 약자이며 주변인이다. 나는 이들의 존재를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싶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비존재라 정의하고 싶다.[146]

F. 자아정체성

모와나 그리피스(Morwenna Griffiths)는 자아정체성이라는 것이 성별, 젠더, 인종 등 사회적 요소에 의해 영향 받으며 정치적 힘에 의해 구성된다는 정체성의 정치학이라고 설명한다.

> 자아정체성은 젠더, 인종, 계급, 세계 정의, 생물학적 성의 정치학에 의해 영향 받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감정들이나 내가 인지한 이유들이나 행위를 촉발하는 욕구들은 모두 대단히 정치적이다. 페미니스트 정치학은 나의 개인성이 정치적 힘에 의해 구성된다는 것과 내가 매우 개인적이라고 느끼는 것이 공적 체계의 통제에 의해

[146] "교회 리더도 아니고 멤버도 아닌 목회자의 부인들이 겪는 고충은 존재의 비존재들이라고 할수있다."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강의 내용 (2016. 1. 6).

> 영향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그런 구성과 통제가 절대적이거나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나는 안다. 나라는 개인과 내가 가진 정체성은 나의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한 내가 그것을 구성하고 통제한다.[147]

그리피스(Griffiths)는 자아정체성이 나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 이외의 타자나 사회구조와 같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이런 영향 아래에서 나의 정체성이 구성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본다면, 먼저 내 이름을 말한 후에 "나는 여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또한 한국사람이다. 여자 목사이고 아내이고 두 자녀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처럼 나를 구성하는 정체성의 범주는 다양하다. 이와 같이 나를 둘러싼 범주들이 자아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나는 1950 년 후반인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태어났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남자로 태어나길 강하게 원하셨다. 부모의 기대와는 달리 여자로로 태어났지만, 차별이나 억압을 가족에게서 경험한 기억은 별로 없다. 그런데도 내가 여성이라는 것을 늘 의식하며 살아온 이유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차별 의식인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나를 규정지을 때 여자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머리에 떠오른다. 또한 남자 목사는 목사라고 말하지만, 난 스스로 여자라는 성별 표시를 앞에 제시한다. 남성들은 자기의 직업 앞에 성별 표시를 하지 않는다. 목사, 의사, 교수로 부른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는 여자 목사, 여의사, 여교수로 성별 표시를 한다. 이에 대해 조혜자는 성별은 가장 현저한 범주이지만 여성과 남성의

[147] Morwenna Griffiths, *Feminisms and the Self: The Web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5), 1.

정체성에 다르게 작용하므로, 남성들은 남성이라는 성별 범주가 기본값으로 인식되어 자신의 다른 정체성을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148] 이는 가부장적인 남성위주의 구조적인 사회 속에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늘 여성은 남성의 하위 구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조혜자는 젠더로 인한 정체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인간 범주 가운데 성별(gender), 인종, 연령은 가장 현저한 범주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성별은 일차적이고 가장 현저한 범주로 지적되고 있다. 성별은 시각적으로 현저 할 뿐 아니라 이분법적이며 상호배타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분법적인 인식의 틀에 잘 들어맞는 범주이다. 따라서 인생 초기에서부터 인간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범주 체계는 성별이다.[149]

젠더 개념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인 성(sex)과는 차이를 보인다. 한 개인은 자신의 젠더를 인식하면서 남성적 혹은 여성적 특성을 받아들인다. 윤진숙에 의하면, 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이원적인 대립 개념으로서 차이로 정의되고 의식구조나 내부화된 이데올로기로 인식되며 또한 지배와 복종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권력으로 분리나 배제의 도구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150]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여성들의 정체성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사모들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규정 지워지는 젠더로 인해 정체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먼저 사모라는 호칭부터 가부장적 사회에서 물려받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모는 교회의 직분도 아니고 역할을 나타내는 호칭이 아닌 단지 누구 목사의 아내라는 부수적

---

[148] 조혜자, "젠더 범주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연구* 8 (2005): 47.
[149] 조혜자, 45.
[150] 윤진숙, "본질주의의 비판과 차이의 철학," *법학논총* 16, no. 8 (2006): 167.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사모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정체성은 존재(being)와 역할(role)이 잘 조화되어야 건강하게 형성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주어진 역할에 따른 여성의 자아상이 여성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조혜자에 따르면, 인간들은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정체성을 추구하므로 사회에서 살아갈 때 긍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좋은 이미지를 유지한다.[151] 사람들은 사회가 승인하고 요구하는 통념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 없다.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상호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긍정적 평가를 받을 때 정체성이 건강해 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의 정체성은 자율적 정체성이라기 보다 가부장제 사회에 의해 요구되거나 구성된 타율적인 특성을 갖는다. 조혜자는 Harter의 말을 인용하여 "일반적으로 자아 이론가들은 자아를 아이-셀프(I-self) 와 미-셀프(Me-self)로 구분해 왔는데 아이-셀프가 타인으로부터 독립되어 존재하는 주체적인 자기 의식을 의미한다면, 미-셀프는 객체로서의 자기로 자신이 속해 있는 범주 인식에서부터 배워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152] 곧 정체성은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의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한 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사모의 정체성이 온전히 확립되기 위해서는 개인만의 변화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가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사모가 속해있는 교회와 가족, 특히 남편과의 상호관계를 잘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153]

---

[151] 조혜자, 55.

[152] 조혜자, 55.

[153] "기독교 인간학을 기술하는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인간의 '하나님 형상(Imago Dei)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라는 것을 늘 각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의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창조로 기록되어있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모두 그 종류대로(창 1:11, 12, 21, 24-25) 창조되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창1:27)라는 말씀을 근거로 박준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엄격하게 금지된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다. 단 한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느냐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씀 만큼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강조해 주는 말씀은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다.[154]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 존재들은 그 분의 사랑과 존엄이 우리에게도 내재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이 있으면 관계의 갈등도 줄어들고,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 문제는 비단 사모의 문제에 국한 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할 개념이다.

김재진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창 1:26-27)." 김재진, ""함께(עם) 있음(삶)"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신학논단* 31 (2003): 73.

[154] 박준서, "하나님 형상으로 여자와 남자가," *새가정* 406 (1990): 60-61.

> 하나님의 영이 육체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 구조 곧 영원한 아들 속에 영으로 내재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구조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존재 구조가 외적으로 물질을 입을 때(hypostatische Seinsstruktur)는 그 존재 구조의 본을 따서 그 모양대로 창조한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 인간이다.[155]

이러한 근거로 하나님은 사람을 여자와 남자로 창조하셨다.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삼위일체의 존재 구조를 인간이 본받게 하기 위해 당신의 형상 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이다. 김재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길은 오직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56]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 가능하다. 남과 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지체로서 동등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남자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모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사모들의 정체성도 건강해 질 수 있다. 나는 성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교회제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자신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맘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사모로 불리우는 여성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된다. 왜냐하면 사모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정체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모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모두이다. 교인들과 목사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며 사랑의 관계로 발전될 때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또한

---

[155] 김재진, 97.
[156] Ibid.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G. 인지행동이론

인지행동이론(Cognity Behavioral Theory)는 우울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정서(emotion)와 인지(cognition)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157] CBT 치료자인 제시 라이트(Jesse Wright), 모니카 바스코(Monica Basco), 마이클 티즈(Michael Thase)에 의하면 CBT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인지는 우리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둘째는 우리가 실행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사고 패턴과 정서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158] 인지치료는 아론 벡(Aaron T. Beck)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벡(Beck)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1960년대 초에 인지 이론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인지이론은 거의 모든 정신적 장애 뿐 아니라 '일상의 문제'에도 적용되고 있다.[159] 벡(Beck)은 인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고'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온 인지(cognition)란 말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는 – 또는 잘못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킨다."[160] 그러므로 잘못된 생각 즉 인지왜곡을 바로 잡음으로 역기능적인(부정확하거나 쓸모없는) 사고와 행동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

[157] Siang-Yang Tan and W. Brad Johnson, "Spiritually Orient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n *Spiritually Oriented Psychotherapy*, eds. Len Sperry and Edward P. Shafransk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7), 85.

[158] Jesse H. Wright, Monica R. Basco, and Michael E. Thase, *Learning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 Illustrated Guide*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2006), 1.

[159] Aaron T. Beck, *인지치료와 정서장애*, trans.민병배 (서울: 학지사, 2017), 119.

[160] Aaron T. Beck,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trans. 채석봉 (서울: 학지사, 2001), 16.

있다.[161] 우울증에 관한 벡(Beck)의 인지 모형은 우울증 원인과 치료에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인지, 즉 왜곡된 사고의 패턴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162]

그의 인지치료는 우울증의 심리학적 기초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가 인지 3요소(cognitive triad), 둘째가 인지 도식(schemas), 셋째가 인지왜곡(cognitive errors)이다.[163] 첫째, 인지 3요소(cognitive triad)는 내담자가 자신을 보는 관점과 세계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negative view of self)', '타인과 세상 전반에 대한 부정적 해석(negative interpretation of experience)'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negative expectation)'[164]을 하게 된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거나 혹은 나쁜 사람이거나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부정확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의 상태가 불공정하고 고통스럽다는 자신의 세계관에 대한 편견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은 결코 구제될 수 없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더 절망하게 된다.[165]

---

[161] Aaron Beck, "Thinking and Depression, II. Theory and Therap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0 (1964): 561-571; quoted in Judith Beck, 18.

[162] Aaron T. Beck and Brad A. Alford,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9), 10.

[163] Aaron Beck,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80.

[164] Aaron Beck,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226.

[165] 김예식, "신앙적사고(Faith Thinking)로의 전환을 통한 크리스챤 우울증 인지치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2005): 11.

둘째, 부정적 인지도식이다. 벡(Beck)은 인지치료 이론의 핵심이 부정적인 인지적 도식(negative cognitive schema)에 그 뿌리가 있다고 본다.[166] 이처럼 벡(Beck)의 인지모델은 환자의 기분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역기능적인 사고가 모든 심리적 장애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67] 김예식은 인지도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도식(schema)이라는 용어는 인지 패턴을 가리키는 말이다. 개인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그 상황과 연관된 도식이 활성화하고 도식은 자료들을 언어적 혹은 영상적 내용을 가진 생각으로 정의되는 인지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도식은 개인이 접하는 자극들을 선별하고 구분하여 부호화하기 위한 기초를 이룬다. 개인은 도식이라는 주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평가한다. 어떤 도식이 활성화되느냐에 따라 경험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우울증 상태가 점차로 심해질 때 내담자의 사고는 전적으로 왜곡된 도식에 의해 지배되어 그는 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168]

도식(schema)은 의식적 노력 없이 작용하는 것이므로 인지 이론가들은 이를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라고 부른다.[169]

셋째는 인지왜곡(cognitive disorders)이다. 벡(Beck)은 왜곡된 정보처리로 6가지의 인지왜곡을 설명한다. “임의 추론(Arbitrary Inference)”, “선택적 압축(Selective Abstraction)”, “과잉일반화(Overgeneralization)”, “극대화와 극소화(Magnification and Minimization)”, “개인화(Personalization)”, “이분법적 사고(Absolutistic Dichotomous

---

[166] P. H. Blaney,”Contemporary Theories of Depression: Critique and Comparis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203, quoted in 김예식, “신앙적 사고(Faith Thinking)로의 전환을 통한 크리스챤 우울증 인지치료,” 11.

[167] Judith S. Beck, *Cognitive Behavior Therapy: Basics and Beyond 인지행동치료 이론과 실제*, trans. 최영희 (서울: 하나의학사, 2017), 19.

[168] 김예식, 12.

[169] P. H. Blaney,”Contemporary Theories of Depression: Critique and Comparis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6: 223, quoted in 김예식, “신앙적사고 (Faith Thinking) 로의 전환을 통한 크리스챤 우울증 인지치료,” 12.

Thinking)"[170]이다. 스테판 브레이어스(Stephen Briers)는 이와 같은 인지왜곡을 '정신적 감옥'이라고 명명 하면서 우리를 가두어 불행하게 만드는 생각의 오류를 더 잘 알아차려야 한다고 역설한다.[171]

1. 인지모델(Cognitive Model)

인지행동이론은 인지 모델을 근거로 하며, 인지모델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어떤 사건에 대한 그들의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다고 가정한다.[172] 즉, 개인의 정서와 행동은 주로 그가 세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는 과거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어떤 태도나 가정에 기초한다.[173] 다시 말하면, 인지모델에서는 사람들의 감정이나 행동이 그들의 사고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느낌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상황 자체라기 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달려있다.

Judith S. Beck 은 인지적 해석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의 변화를 느낀다. 그 상황 자체는 그들이 어떻게 느끼는 가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이 인지 행동치료에 대한 기본 서적을 읽는다고 상상해 보자. 책을 읽으면서 마음 속에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 그들은 여러 가지 감정적 반응을 일으킬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여러 수준의 사고에 주목할 수 있다. 당신 생각의 한 부분은 이 책의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당신은 사실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통합하는 노력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수준에서 매우 빠른 평가적 사고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사고들은 자동적 사고(automatic thought)라고 불리며,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다.[174]

---

[170] Aaron T. Beck,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우울증의 인지치료*, trans. 원호택 (서울: 학지사, 1973), 13.

[171] Stephen Briers, *Brilliant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똑똑한 인지행동치료*, trans. 김성욱 et al.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44.

[172] Ibid., 50.

[173] Aaron T. Beck,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우울증의 인지치료*, 18.

[174] Judith Beck, 50.

자동적 사고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흔한 경험으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동적 사고들을 인식하려면 어느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동적 사고의 특징을 Judith S. Beck 은 이렇게 설명한다:

> 자동적 사고는 사고의 외현적인 흐름과 공존하고, 자발적으로 발생하며, 의도적이거나 심사숙고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동반되는 감정만을 인식하지만, 약간의 훈련을 거치면 자신의 사고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된 자동적 사고는 그 내용이나 의미에 따라 특별한 감정을 일으킨다. 자동적 사고는 흔히 간단하고, 빠르게 스쳐가며, 속기형으로 표현되고, 언어적 혹은 영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동적 사고를 평가하거나 심사숙고해 보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동적 사고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반응하는 것은 흔히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한다.[175]

이런 자동적 사고의 특징을 보면, 첫째, 대개 막연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이고 분명하다. 이러한 생각들은 반사처럼 '그냥 나타났다'[176]라고 표현한다. 즉,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그 생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둘째, 자동적 사고는 매우 단편적이기 때문에 사고 자체보다는 사고의 결과로 느끼는 감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은 자신의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면 불안, 슬픔, 초조 또는 당황함 등을 느낄 수 있다.[177] 셋째, 자동적 사고는 사고 자체는 정확하기는 하지만 당사자가 내린 결론은 왜곡될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역기능적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178]

---

[175] Judith Beck, 178.
[176] Aaron T. Beck, *인지치료와 정서장애*, 41.
[177] Judith Beck, 177.
[178] Ibid.

엘리스(Ellis)는 이러한 역기능 적인 자동적 사고를 '내면화된 진술(internalized statements)' 또는 '자기 진술(self-statements)'이라고 부르면서, 환자들에게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고 설명해 주었다.[179] 멀시비(Maultsby)는 이러한 생각을 '혼잣말(self-talk)'[180]이라고 불렀다. 설명은 환자들에게 자동적 사고가 자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그 생각을 끄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181]

2. 기독교 상담과 인지

게리 콜린즈(Gary Collins)는 기독교 상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기독교적 진리와 세계관을 토대로 헌신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은 상담자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기술, 훈련, 지식, 통찰력을 사람들 돕는 일에 적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정신적인 안정과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182]

나는 목회돌봄의 과정에서 상담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경청과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접하는 내담자는 주로 여성들이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나누기 원한다. 나는 그들의 힘든 상황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 좋은 결실을 맺는다고 본다. 상담가는 경청에 대해 늘 훈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논문 구두시험 과정에서 담당교수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 나를 발견했다. 경청은 페미니스트에게도 중요한 덕목이다.

---

[179] Albert Ellis, *Reason and Emotion in Psychotherapy* (New York: Lyle Stuart, 1962), quoted in Aaron T. Beck, *인지치료와 정서장애*, 220.

[180] M. C. Maultsby, "The Pamphlet as a Therapeutic Aid." *Rational Living* 3 (1968): 31-35.

[181] Aaron T. Beck, *인지치료와 정서장애*, 220.

[182] Gary R. Collins, *The Biblical Basi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People Helpers 기독교 상담의 성경적 기초*, trans 안보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33.

나는 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접하게 된다. 내가 그 동안 학습되었던 것들이 체득화되는 과정인 것 같다. 자신의 실체는 평소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위기나 충돌이 야기될 때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나도 이번 논문 프로젝트 준비과정에서 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인식하며, 이로 인한 목회돌봄의 한계를 느끼며 새롭게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처럼 기독교 상담도 수용, 거부,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발전하고 있다.[183]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상담은 하나님에 의한 치유가 신체와 마음 그리고 영혼의 치료로 지속되어오던 중에 상담의 영역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과학과 함께 발달한 심리학의 등장이었다.[184]그 변화는 프로이트에 의해서 시작된 정신분석과 그 이후에 등장한 행동주의이다.[185]

행동주의(Behaviorism)는 심리학에서 인간의 심리를 정신적인 세계보다 '행동'의 과학으로 연구하는 주의다. 프로이드의 말을 들어보면, 심리학에선 인간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것'은 내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그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폭력이라면 질색을 하는 사람이 되거나 등등 어떤 행동이나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대표적인 행동주의 심리학자인 스키너(B.F.Skinner)는 이런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여겼다. 행동주의가 대두되는 당시는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학문적 방법으로 심리학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인간이 내면에 존재하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나, 어머니에게 받은 애정의 작용에 대해

---

[183] 김용태,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학지사, 2006), 20.

[184] 윤은아, "부부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기독교 인지행동치료"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6), 45.

[185] Ibid., 46.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외부 자극(stimulus)과 그것이 야기하는 어떤 반응(response)을 연구하기 시작했다.[186] 이런 일련의 심리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는 기독교 상담의 기초가 되었다.[187]

기독교 상담이 인지행동이론과 가까이 접목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성경적 접근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188] 데보라 레들리(Deborah Roth Ledley)는 인지행동이론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인지행동이론은 심리장애의 이해와 치료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이론, 행동적 접근과 인지적 접근이 최근에 통합된 것이다. 엄격한 행동적 접근은 단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행동에만 초점을 두고, 모든 정신적 사건을 무시한다. 마음과 뇌는 쉽게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행동 변화에 적절하지 않은 '블랙박스'라는 관점이다. 즉, 행동적 접근은 환경과 행동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인지적 접근은 마음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특히 감정과 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인지에 초점을 둔다.[189]

이처럼 환경이 우리의 느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은 달라질 수 있다. 인지행동이론의 이론적 기초는 성경이 묘사하는 신앙과 유사점이 있다. 예를 들면, 바울이 빌립보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당시 바울의 환경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절망의 환경이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빌립보서 4 장 4 절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로 바울의 환경과는 상반된 바울의 인지적 표현을 볼 수 있다.[190]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지행동치료는

---

[186] http://wikilluminative.org/wiki/행동주의 (Accessed February 19, 2018).

[187] 윤은아, 46.

[188] Mark R. McMinn, 13.

[189] Deborah Roth Ledley, Brian P. Marx, and Richard G. Heimberg, *Making Cognitive – Behavior Therapy Work 초보자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 trans. 김정모 and 전미애 (서울: 학지사, 2014), 23.

[190] Mark R. McMinn, 36.

기독교 사상과도 매우 일치하는 점이 많다. 기독교 인지상담학자인 마크 맥민(Mark McMinn)은 인지행동이론이 기독교인에게 적절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기독교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성경의 진리를 비추어 평가하는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많은 내담자들이 거부, 버려짐, 사랑받지 못함에 대한 깊은 공포심으로 형성된 핵심신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박할 수 있으므로 치료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91] 이처럼 맥민은 심리학, 상담학의 이론을 충실히 따르고 적용하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적 세계관과 잘 접목된 인지치유 행동은 기독교인들에게 적합한 치유기법이라고 설명한다.

위에서 언급한 인지행동이론은 사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정체성의 문제를 고정관념이라는 관점에서 다루는데 효과적이다. 조혜자와 방희정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에게 자신을 기술할 때 성별이라는 정체성이 남성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192] 이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는 남녀의 성차별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여성들은 남성들과 달리 자아정체성의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젠더(gender)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젠더는 인간을 이분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서 김금미와 한덕웅에 의하면 "여성 혹은 남성으로 분리되어 문화에 따라서 각 범주별로 지니는 일정한 고정관념과 연결된다."[193] 즉, 여러 사회에서 젠더는 세력이나 차별과 관련이

---

[191] Ibid., 32-33.

[192] 조혜자 and 방희정, "암묵적인 자기 범주화의 성차," *한국 심리학회지: 여성* 11(2): 1-21, quoted in 조혜자 and 방희정, "중년 여성의 자아 정체성," in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 (1): 202.

[193] 김금미 and 한덕웅,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2): 15.

되어 있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에 따라 자기를 고정관념화(self-streotyping) 할 수 있다.[194]

우리 모두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간다.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도 나의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질때가 있다. 나도 이 논문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많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모와 교인들의 갈등을 보면, 서로의 고정관념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모는 이래야만 되는데, 혹은 교인들은 이래야만 되는데 라는 고정관념으로 관계가 힘들어 진다. 나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라는 것만 생각해도 정체성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정관념은 경험을 통해 부정적 사고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모들의 자아정체성을 인지행동이론의 관점에서 보는 이유도 고정관념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모들의 정체성이 더욱 흔들린다고 생각한다. 사모들의 고정관념은 외부적인 상황에서 자극을 받아서 생긴다. 예를 들면, 교인들에게 상처받고나면 '교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된다. 또한 조혜자 등의 연구에서 보면, "중년여성들은 자녀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강하고 자신감이 있지만, 시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나 남녀 모임에서는 적극적이지 못하고 강하지 않으며, 자신감도 약해질 뿐아니라 자신을 여성적이라고 지각하는 비율이 높다."[195] 이는 여성들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결과로 결정되어진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행동이나 모습들을 조정하므로 자아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

[194] 조혜자 and 방희정, "중년여성의 자아정체성," 202.

[195] 조혜자 and 최효일, "한국 중년 여성의 관계적 자아표상:여성적, 남성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2, no. 1 (1999):129-40, quoted in 조혜자 and 최요일, "중년여성의 자아정체성," 201-3.

사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교회나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모라는 정체성에 따라 자기고정관념화(self-streotyping)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본래의 건강한 자기 모습이 아니다. 한국 기독교 상담심리치료학회가 목회자 사모 726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9.9%가 우울증세를 보였는데, 그 중 10%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발표했다. 주요 스트레스 원인은 사역의 부담이 22%, 경제적 상황이 21%, 교인과의 관계 20%, 고충을 나눌 대상이 없음이 19%였고, 대다수의 응답자인 96%가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했다.[196]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는 힘든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사모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심층 면담을 통해 교인들이나 사모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사고들을 합리적 사고로 전환시킴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한다. 또한 사모들에게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요인을 추론하여, 사모 스스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존재로서의 가치와 역할로서의 가치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려하는 목적이 있다. 인지행동이론은 긍정적 사고의 성경구절과도 잘 부합되므로 성경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사모들에게 가장 적절한 상담기법이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196] 장은진, "목회자 사모의 정신건강과 상담에 대한 요구도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6 (2008): 187-210.

Chapter III

심층면담 방법 및 절차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는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들을 심층 면담함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는 자아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호소하고 있는 체득된 경험들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자아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지를 관찰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했다.

A.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내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엘피스 사역원(사모,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치유와 회복 사역을 목적으로 함)의 방향과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모들이다. 3 명의 연구 대상 사모들의 연령대는 40-60 대 중년 여성으로 남편인 목사가 현재 담임 목회를 하는 사모들이 대상이다. 먼저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할 때 동의서(부록 A 참고)와 함께 연구참여자에게 인터뷰가 단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동의서에는 학교에 대한 정보와 담당교수의 연락처를 공개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는 가명을 사용하여 철저히 보호할 것이며, 면담 시 이루어진 녹음은 연구가 종료되면 파기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연구를 위해 면담 참여시 참여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도 알려주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권익을 보호하고 윤리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 '기관 윤리 심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10/20/2017)을 받아서, 논문 프로젝트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면담기간은 10/23/2017 부터 11/28/2017 까지 내가 사역하는 엘피스 사역원과 참여자들의 교회와 가정을 방문하여 2 회에서 5 회 정도로 실시 하였다.

아래의〈 표 1〉은 연구 참여자 3 명의 기본 인적 사항이다. 표본 추출의 적절성을 위해 연구의 목적에 따라 40 대, 50 대, 60 대의 담임목회자의 사모들로 선정되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인적 사항

사례 번호	직업	연령대	가족관계	결혼 년수	신앙년수
참여자 1	담임목사 사모	50 대	남편, 아들, 딸	20 년 이상	모태
참여자 2	담임목사 사모	40 대	남편, 아들(2)	10 년 이상	20 년 이상
참여자 3	담임목사 사모	60 대	남편, 아들, 딸	30 년 이상	모태

B.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Creswell 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란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the phenomenon)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lived experiences)적 의미를 기술"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97] 즉, 현상학적 연구는 각각의 개인들이 경험한 현상을 단편적이 아닌 심도있게 깊이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적연구는 신충식에 따르면 "객관과 데이터에 따라 어떤 현상을 외부로부터 설명하려는 계량적 접근 방법에 반하여 내부로부터 이해하려는 기술적(descriptive)접근 방식"이기 때문이다.[198] 그러기 때문에 사모들의

[197] John W. Creswell, 91.

[198] 신충식, "질적 연구 방법과 현상학," *사회과학* 42 no. 1 (2009): 86, quoted in 이상수,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법사회학 강의와 구조-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돌출," *법사학연구* 43 (2011): 105.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부로부터 나오는 각 개인들의 체험적 기술이 필요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모들의 체험을 연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들을 심층 면담할 것이다.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ing)의 목적을 어빙 세이드맨(Irving Seidman)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가설을 검증하려는 것도 아니며, 이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듯이 '평가'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심층면담의 근원에는 다른 사람들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라고 설명한다.[199]

심층 면담은 주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참여자들의 반응을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할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개방형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전에 목회자의 아내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알고 결혼 했다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었는지요?/ 모르고 결혼했다면, 목회자 아내가 된 이후에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었는지요?)

2. 본인이 생각하는 사모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3. 사모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생각이 나의 실제적인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199] Irving Seidman,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trans. 박혜준 and 이승연 (서울: 학지사, 2009), 31.

4. 사모로서 가장 의미있는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있으신지요?)

5. 사모로서 가장 힘든 경험은 어떤 것이었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6. 만약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시는지요? (남편인 목회자와의 갈등, 교인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기타 관계 속에서의 갈등)

7. 사모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는 지요? (남편인 목회자, 교인, 자녀 등의 사모에 대한 인식)

8. 사모로서 부당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모로서 교인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격려를 받은 경우가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 당시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고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9. 사모가 교회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시각은? (긍정적인 평가일 경우/부정적 평가일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실수 있으신지요?)

10. 자녀들이 바라보는 나의 이미지는 ?

11. 자기 자신만을 위한 공간이 있나요?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 금전적 여유 등)

12.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C. 연구 절차

본 논문 프로젝트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려고 한다. 김영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현상학적 자료 분석절차는 아래와 같다:

> a. 자료의 검토- 수집된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 안에 포함된 의미를 발견한다.
> b. 의미나 주제의 추출- 의미나 주제를 추출하여 그것을 범주화한다.
> c. 의미나 주제 단위로 진술을 통합 – 범주화된 의미나 주제 단위의 진술들을 따로 묶어 여러 개의 의미 단위를 구성한다.
> d.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자료에 대한 성찰- 의미나 주제 단위로 묶인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것의 의미를 밝힌다.
> e. 의미나 주제에 대한 통합적인 구조적 진술의 구성- 각각의 의미 단위에 대해 성찰하여 그 의미나 주제에 대한 개념화를 한다.[200]

이와 같은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지오르기(Giorgi)의 연구 방법을 따르려고 한다. 지오르기(Giorgi)는 현상학의 개념을 "참여 대상자가 경험한 현상의 본질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201]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관은 곧 성찰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현상의 본질을 연구하기 위해서 깊은 사색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런 성찰은 일회적이 아니라 순환이 되고 반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2]

현상학적 질적연구에서는 에포케(epoche)를 중요시 여긴다. 에포케(epoche)는 다른 말로 판단중지 또는 괄호치기라고도 하는 것처럼, 연구자가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하여 새로운 신선한 관점을 갖기 위해 가능한 한 연구참가자의 경험을 미리 판단해서도 안되고, 연구자

---

[200]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110.

[201] 고미영,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현상학적 서술," *한국사회복지학* 56 no. 1 (2004): 77, quoted in 이상수, 108.

[202] 유혜령, "육형상학적 질적연구에서의 성찰과 연구기법의 문제," *아동교육* 18, no. 1 (2009): 43, quoted in 이상수, 109.

자신의 경험을 괄호처럼 묶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203] 그러므로 사모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만들기 전에 먼저 에포케(epoche) 작업을 하였다. 내가 이 논문 프로젝트 안에서 정리한 에포케(epoche)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결혼 후의 사모라는 호칭에 대해 거부감이나 중압감이 있을 것이다.

2. 사모로서의 인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을 것이다.

3. 교인들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늘 희생할 것이다.

4. 사모들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5. 사모는 목회자인 남편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6. 사모들은 자녀들에게 늘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7. 사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온전한 정체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8. 사모는 삶의 여유가 없고 늘 분주한 사역 속에서 힘들어 할 것이다.

이런 에포케(epoche) 작업을 마친 후에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분석절차를 따라서 분석하고자 한다.

지오르기(Giorgi)가 제안하는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보면 다음의 내용과 같다:

1. 처음에는 녹음된 데이프롤 들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사본 읽기
2. 각각의 필사본에 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기
3. 각각의 필사본 속에 있는 의미의 단위들을 파악하기
4. 필사본에 있는 각각의 의미 단위와 관련된 진술들을 다시 묶고 재기술하기
5. 주제들을 밝히기 위해서 모든 참여자들 전반에 걸쳐서 각 의미에 관해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반성하기
6. 각각의 불변의 주제를 명시하기 위해서 전형적인 담화, 쓰기
7. (참여자들과 동료들에 의한) 유효성 확인하기

[203] Creswell, *질적연구방법론*, 94.

8. 진술들을 종합하기[204]

지오르기(Giorgi)는 '과학적 현상학 연구'에서 따라야 하는 4 가지 필수적인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단계는 '전체적인 인식'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연구자의 학문적 관점에서 현상에 대한 의미단위를 구분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대상자의 일상적 표현을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는 것이다. 넷째 단계는 '모든 변형된 의미 단위를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다.[205]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려고 했다.

하지만 본 논문 프로젝트 구두시험에서 교수위원회는 분석한 결과인 4 가지의 주제군[206] 중 한가지 주제인 '인지왜곡'이라는 주제가 사모 개인의 문제로 귀결되어지는 것과 정체성 질문의 한계[207]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주심교수인 이경식은 페미니즘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키워드로 삼아 사모들에게 그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인터뷰하여 분석할 것을 권면했다. 그 분석방법은 내가 사용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제군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주제어에 맞게 질문을 한 후에 코딩하는 선험적 분석방법(Apriori Coding)[208]이다.

---

[204]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107.

[205] 윤선자, "남편의 외도를 경험한 크리스천 중년여성들의 심리적 현상연구" (Ph.D.diss., 백석대학교 기독교 전문대학원, 2008), 36-37.

[206] 4 가지 주제군은 인지왜곡, 목사중심적 목회, 교인들의 고정관념, 유교적 영향이다.

[207] 논문 구두심사 과정에서 주심교수와 부심교수는 인터뷰 질문 내용이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역할로서의 정체성만 드러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208] 선험적 분석방법(Apriori Coding) 이란 먼저 주제군을 설정한 후에 코딩하는 방법이다. Alecia Y. Jackson and Lisa A. Mazzei, *Thinking with Theory in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Routledge, 2012) 참고.

주제어는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키워드(Key Word)로써 주체(agent)로서의 정체성, 고정된 자아 개념, 목소리,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라는 4 가지이다. 3 월 20 일부터 3 월 22 일까지 각각 1 차례씩 실시된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모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 사모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자신을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어요?

3. 사모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 본적이 있으신지요?

4. 사람이 사람처럼 산다는 것과 사모님이 사모로 살아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5.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6. 사모님은 사모는 이래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교인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사모는 이래야 되는데라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요?)

7. 나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요?

8. 사모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느낌, 상황, 교회 계획 등)을 자유롭게 목사님과 상의하시나요?

9. 사모님의 의견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나요?

10.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구두시험 후에 나의 잘못된 분석을 인지하고, 페미니즘 입장에서 키워드인 주제어를 분석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구두시험 전에 분석한 4 가지 범주[209]에서 인지행동이론을 근거로 코딩한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만을 제시하려고 한다.

[209] 4 가지 범주인 '인지왜곡, 목사중심적 목회, 고정관념, 유교적 영향' 중에서 인지왜곡에 대한 부분은 제외되고, '목사중심적 목회'와 '유교적 영향'은 페미니즘의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와 같은 내용이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고정관념'에 대한 범주만 다루려고 한다.

Chapter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 프로젝트는 3 명의 사모들의 체험에서 나온 진술로부터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이들의 자아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했다. 먼저 필사된 내용을 반복하여 수차례 읽고 불명확한 부분은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참여자에게 확인하였다. 지오르기(Giorgi)의 질적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진술을 토대로 사모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해 내용분석을 한 후에 각각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68 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여, 이들 중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 묶어 47 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47 개의 주제들을 묶어 6 개의 구성요소를 4 개의 범주로 도출하였다.

첫째 범주(A)는 "인지왜곡"으로 17 개의 의미단위, 12 개의 주제와 2 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둘째 범주(B)는 "목사중심적 목회"로써 5 개의 의미단위, 4 개의 주제와 1 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셋째 범주(C)는 "고정관념"으로 24 개의 의미단위, 13 개의 주제와 2 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넷째 범주(D)는 "유교적 영향"으로 8 개의 의미단위, 4 개의 주제와 1 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이 자료 분석은 요약되어 〈부록 2〉에 첨부되어있다.

하지만 III 장에서 언급한 것 처럼 구두시험과정에서 교수위원회에 의해 분석 결과와 해석에 대한 오류[210]가 발견되어서, 주심교수의 권유로 페미니즘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주체로서의 정체성, 고정된 자아 개념, 목소리,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를 키워드로 삼아 사모들에게 그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하여 분석하는 선험적 분석방법(Apriori Coding)으로 연구한 분석 결과를 먼저 다루고 인지행동이론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211]는 "고정관념"에 대한 범주의 분석결과만을 다루려고 한다.

A. 주체(agent)로서의 정체성

페미니스트 신학의 중심사상은 여성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약자, 소수인, 주변인들을 뒤돌아 보며 새로운 인식으로 그들을 이해하며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본다. 페미니즘의 단초가 되었던 여성차별에 대해 시몬 드 보브아르(Simone de Beauvoir)는 그의 책 *제 2 의 성* 에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212] 보르아르가 주장하는 것은 여성은 사회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남성들 위주의 사회적 관념과 틀에 맞추어 만들어 진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브아르(Beauvoi)가 주장하듯이 '주체'가 언제나 남성위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

[210] 논문 구두심사 과정에서 김남중교수는 인터뷰 질문 내용이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역할로서의 정체성만 드러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고, 인지왜곡의 범주가 사모의 개인의 문제로 분석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인지왜곡의 원인규명의 한계).

[211] 인지행동이론의 분석결과는 인지왜곡, 목사중심적 목회, 교인들의 고정관념, 유교적 영향의 4 가지 범주가 분석되었다. 이중에서 목사 중심적 목회와 유교적 영향의 두 범주는 페미니즘의 분석결과와 동일하므로 제외하고 인지왜곡 범주는 사모에 대한 인지왜곡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교인들의 고정관념 범주만 다루려고 한다.

[212]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trans. E. M. Parshley (New York: Vintage, 1973), 301, cited in 황은덕, "윌리스 워커의 컬러퍼플에 나타난 우머니즘," *여성학 연구* 179, no. 1 (2007): 113.

점이다. 그러므로, 페미니스트 신학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주제는 강남순이 지적했듯이,

'주체로서의 여성(female as subject)'의 특성과 위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13]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모라는 호칭자체에서도 존재로서의 주체성은 찾아볼 수 없다.

정체성에 대해 〈참여자 1〉, 〈참여자 2〉, 〈참여자 3〉는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참여자 1〉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생각하고 있지요. 상대방이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나에 대해서 물을 때… 음…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제 이름을 먼저 소개하고 아 나는 이렇게… 우리 남편이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고 나는 사모로서 같이 돕고 있다고 소개할 것 같은데요. 제이름을 불릴 경우는 교회에서는 저희 남편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ooo 사모라고 불려지죠.

아 그런데… 친구들하고의 모임이나 뭐 이럴때는 서로 이름을 불러주지만 그냥 평상시 일반적인 나의 생활속에서는 그냥 누구 엄마라고 불려지지요.

〈참여자 2〉

당신은 누구십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OOO 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라고… 애기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이름으로 잘 불리죠. 어… 뭐. 그냥 … 저 아는 어르신들도 제 이름 잘 부르시고…

〈참여자 3〉

저는… 나를 소개하려고 하면 하나님 자녀로 그냥 제 이름 말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라고… 원초적으로는 내가 우선은 하나님의 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런…아….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또 여자고 또 부인이고, 사모이고 또 아이들의 엄마고 이제는 할머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내가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죠. 그런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은 이제 변함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이지요. 만약에 제가 교회라던가 또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과 비슷한 곳에서 나를 소개하려면 나는 분명하게 ooo 교회 ooo 목사의 아내, 그 다음에 사모 000 입니다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213]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41.

그렇지만 또 아이들과의 관계나 또 다른 세팅에서는 나는…. 아… 우선 나는 우리 아이들의 엄마고, 아… 또 나는 손녀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엄마입니다 아내 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런 소개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층면담 결과를 보면, 사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즉 이마고 데이(Imago Dei)[214]라는 주체의식이 강했다. 이 주체의식은 존재로서의 주체의식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자에 대해 참아주고, 용납해 주며, 품어줘야 하는 사모들이기에 더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 하는 것 같다. 영적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힘들때나 어려울때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서 해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여자 1〉은 준비없이 사모의 자리에 서게 된 사례이다. 결혼 전에 신학을 공부한 남편에게 목회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는 확답을 받고 결혼했기 때문에, 사업하던 남편이 결혼생활 10 여년이 지나서 목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의 그 날의 놀라움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사건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느낌과 함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으며, 결혼에 대한 후회도 밀려왔다. 〈참여자 1〉은 어릴 적에 믿음 좋은 권사인 친정 어머니가 그 당시 교회에서 목회자 가정이 힘든 모습을 보고 '사모는 힘든 길이니까 절대 가면 안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늘 들어왔다. 또 자신도 모태신앙으로 사모님들의 힘든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모의 길은 절대 가면 안된다'라는 말에 동의하고 있었다. 현재 사모라는 역할을 가진 술어적 주체로서의 삶, 즉 역할로서의 삶에 대해 무게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녀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214]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체관으로 창세기 1 장 27 절 에 근거하였다. II 장의 자아정체성 부분에 설명되어있다.

영위하고 싶었던 자기의식을 가진 주체와 사모의 역할로서의 주체로 인해 상충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현재 한국체류 중인 〈참여자 1〉의 3 월 22 일 전화인터뷰 내용에서 사모라는 역할로서의 주체에 대해 이렇게 답변한다.

〈참여자 1〉

… 아무래도 내가 그러니까… 평신도로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사모로서 살아가는 거하고는 삶이 뭐랄까 구분되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을 절제 해야 하고 또 뭐랄까 손해를 보더라도, 손해보는 느낌으로 살아야하고 양보해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참아야 하고… 내가… 내 감정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는 그런 것들… 일반적인 사모로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사모가 아닌, 그런 상황,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지금 있는 동안에는 그런 타이틀을 딱 벗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나는 오로지 그냥 내 생활만 하면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사모로서 생활을 해야 하니까 일단 내 생활 보다, 내 가정 보다 일단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심으로 항상 교인들을 생각해야 되고 항상 교회가 내 그… 생각속에 항상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 와서는 전혀 그런거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게 편한것 같아요.

〈참여자 1〉의 면담을 통해 사모로서의 정체성, 즉 역할로서의 정체성이 자아정체성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모는 최우선이 교회 사역으로 늘 교회와 교인들의 일이 우선으로 긴장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참여자 1〉

제가 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려고 하는 그런 일은 제가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제가 사모가 된거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만약 평신도였다면 그냥 내가 내 감정대로 내 기분 나쁜 것, 내 모든 것 다 부딪히고 이렇게 뭐랄까 했을텐데 음… 사모가 되었으니까 사모는 이래야지라는 그런 참아야 된다라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많이 참는 훈련 그런거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1〉은 참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한다. 왜 하나님은 사모에게만 이런 참는 훈련을 시키실까? 아니면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훈련을 받고 있지만 사모의 훈련은 더 강한 훈련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참여자 2〉는 20 여년 전에 예수를 영접한 후에 바로 선교 훈련을 받게 된 사례이다. 결혼하게 된 동기도 선교단체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 결혼을 했다. 부부가 함께 캠퍼스 선교사로서 사역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교회 사역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젊은 층(30-40 대) 부부가 대부분의 구성원인 교회 목사 사모이다. 그녀는 뚜렷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어서 사모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고 사모라는 역할은 목사의 아내라는 부수적인 존재보다 자기의식을 갖춘 주체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역할에서의 정체성도 선명한 부분이 있다.

이우정이 사모 자신이 술어적 주체-(사모역할에 대한) 정의-에 따라 언표의 주체와 언표 행위의 주체자가 일치할 때 자기 의식을 갖춘 주체의 자기 확인이 성립한다고 하듯이 〈참여자 2〉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기 의식의 주체와 사모라는 역할의 주체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자기 확인이 선명한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현재의 삶에 즐거움이 없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쉽지 않은 사모의 삶을 들여다 본다.

〈참여자 2〉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뭐라고 해야하지. 저를 거룩하게 빚어 가신다… 거룩하지 못하고 모나고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 가신다고 해야되나.
그러시는것 같아요. 잘 못 참고… 못 참고, 이제 막, 사실, 인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인내하기 원하시고 또… 그 다음에… 정말… 믿음. 제가 믿음이 있다고 자꾸

애기하면서도 보면은 하나님보다 제가 더 앞장 서서 막 나갈려고 하는 그런게 좀 많은 것 같아요.그런 것들을 다듬어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 2〉도 사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인내하는 모습으로 다듬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고백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본인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분명한 주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모의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여자 3〉은 모태신앙으로 결혼 전부터 사모라기 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든 사용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존재로서의 주체보다 사역으로서의 주체성 만을 가지고 교회사역에 열심을 낸 결과로 영육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참여자 3〉

역할로서의 그런 삶을 너무 열심히 충실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음... 그런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역할로서의 삶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인제 여러 가지 그러한 그런 어려움이 오면 그...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어려움이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역할로서의 삶을 쓰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도 하시지만 그것이 일로써의 그러한 일이 아니라, 물론 사모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걸 통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존재를 귀하게 아… 생각하시는데 그런 걸 너무 무시하고 역할로서의 삶을 집중했을 때 그런 어려움... 신체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했었죠.

〈참여자 3〉은 하나님의 형상(이마고 데이)으로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존재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고통의 시간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존재로서의 주체와 역할로서의 주체[215]를 균형있게 이루어감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여자 3〉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사모지만, 이제 목사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사모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떤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의 사모가 되었고, 결단을 했고 목회자,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싶은 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들은 우선 저는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저한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정말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는것 같아요. 사모이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겠지요.

〈참여자 3〉은 하나님께서 사모로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사모이기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표현 속에 자아정체성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면담을 하면서 사모들에 대해서 느낀 점은, 내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나 자신의 주체성으로 비롯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예를 들어, 남편이나 교인들의 요구와 기준에 의해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이유는 한인교회의 구조적 문제를 들 수 있다. 좋은 사모는 희생하며 그림자처럼 내조하는 사모라는 교회나 사회의 요청에 의해 사모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은 상실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215] 본 연구 프로젝트의 구두시험 중에 부심교수는 존재로서의 주체와 역할로서의 주체에 대한 구분을 지을 때에 온전한 주체성을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정우는 주체에 대해 서술적 주체와 자기 의식을 갖춘 주체의 두 부분에 대해 언급했는데(본 연구 용어정의 부분 중에 자아정체성에 설명되어 있다) 서술적 주체가 역할로서의 주체도 포함하며, 자기 의식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포함한다고 생각된다.

교인들이나 남편 혹은 사회적으로 통념화 된 것들을 내면화 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역할로서의 사모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의 사모 자신에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주체성(agency)회복이다.

B. 고정된 자아 개념

제 3 세대 페미니스트들의 견해는 사람들은 각각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공통된 특성이 있지도 않고, 고정된 한 가지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므로 남성과 여성을 이중적인 잣대로 구별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견해로 볼때, 남녀를 고정화하여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두 한 인간이라는 이해의 차원에서 다양성과 복합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성이나 남성들의 단일한 정체성은 불가능하며 정체성은 정체 되어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나도 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나는 고정된 자아에 대한 개념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논문 지도교수들의 코멘트(comment)를 통해 나의 본질주의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정된 자아'는 이미 형성되어서 변화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는 본질주의(essentialism)[216]에 근거를 두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적 사회에서 더 단단해 진다. 또한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나 개인들에게도 본질주의 사상은 고착화 된다. 심층면담을 통해 고정된 자아 개념에 관해 〈참여자 1, 2, 3〉은 이렇게 답변한다.

[216] 본질주의란 일정한 구조를 지닌 고정되고 일정한 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39.

〈참여자 1〉

글세요… 뭐… 특별히 뭐 그렇게 내 기억에 남자는 이래야되… 여자는 이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이렇게 자리 잡게끔 기억나게끔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모는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모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요. 음…그러니까 사모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것 마음껏 하지 말아야 되고 오로지 교회 내에서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절제해야 되는 삶, 그러니까 내 감정도… 내가 화나거나 내가 뭐… 슬프거나… 내가 힘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보다 내가 더 잘 살면 안되고… 내가 더 부요해도 안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도 안되고…

보통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다라기 보다도, 옛날 사모님들은…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

그런데 저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간에 그게 그렇게 부요하게 살면 안된다라는 생각은 아닌것 같아요.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목사님도 부요하게 살 수 있고 갖고 싶은것 가질 수도 있고, 얼마든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표현을 할 수 있는건데… 교인들은 그 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저는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자는 남자 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 다워야 되는데… 결혼해서 남자의 역할은 집안의 가장,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 그렇다면 여자는 남편을 서포트하고 아이들을 잘, 책임감 있게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모님은요… 사모님은 그냥 목사님 내조 잘 하고… 또… 주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3〉

남자는 남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그런… 남자의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여자는 또 여성스러운 그런 특별한 것들… 남자들이 갖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조금 여성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때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남자들에게는 약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자들이 해야할 몫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자는 꼭 남자가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남자가 하고 있는 일을 여자들이 할 수 있지만 또…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체성을 흐려서까지 그렇게… 오버하는… 저는… 그런 부분을 별로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물론 그렇다고해서 절대 남자들이 하는 일을 여자는 못한다.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들은 못한다 절대 그런건 아니고요. 특별히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여자가 감당하고 남자들이 또 해야할 몫은 남자들이 감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모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것 같은데 사모라는 역할이 사실은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사모가 있는거지요. 그 목회자의 경향성이나 그 분의 어빌리티나, 그 목회 스타일에 따라서 사모의 역할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요.

〈참여자 1〉은 여성이나 남성의 고정적 자아에 대한 개념은 강하지 않았다. 반면에 사모는 이래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강하게 나타났다. 남자 형제가 없는 가정에서 성장한 〈참여자 1〉은 성별차별 의식이 없는 가정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본다.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고 있던 사모에 대한 고정적 자아 개념은 〈참여자 1〉에게 내면화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내면화는 부모가 만들어 준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당시 한국교회의 상황과 교인들의 가치관, 생각들이 그대로 반영된 내면화[217]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2〉는 분명한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고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 나도 얼마 전까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정체성을 고정화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고정된 자아 개념은 다른 사고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이번 논문

[217] 내면화 했다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에 의해 형성된 신념체계나 가치구조 등을 때로는 자의적으로 또는 무비판적으로 동의하게 되는 상태이다. 강남순, *페미니스트신학*, 294- 97.

프로젝트를 수정하면서 알게 되었다. 본질주의 사고는 다른 사건이나 상황을 보는 관점에서도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경험으로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 3〉는 분명한 남녀의 차이에 대한 고정적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고, 사모의 역할이 남편 목사의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본질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특성에 따라 사모의 역할이 달라지긴 하지만 항상 목사의 비서 역할이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사모들 뿐만 아니라 교회 여성 대부분이 이런 고정된 자아 개념이 고착화되어 있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나 교회는 본질주의 사상의 영향권 아래 있다. 나 역시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고 자란 세대라는 것을 실감했다. 겉으로는 느끼지 못했는데, 내 안에 이미 내면화된 본질주의 사상이 깊숙이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교인들도 본질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모가 왜 저래하는 이슈가 등장한다. 교사였던 사모가 교육 부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몇 년을 교회 리더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은 목사가 사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목사들의 관점도 역시 본질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사모가 너무 앞에서 설치면 안된다'라는 것도 역시 본질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사모는 무조건 교회 리더의 역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도 편견에 치우친 본질주의이다. 이런 사모, 저런 사모의 label(표)을 붙이는 교인들이 이민사회에는 더 많은 것 같다. '이민사회가 더 고착화 되어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염려를 해 본다.

C. 목소리

페미니스트 상담가들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218] 미리암 그린스판(Miriam Greenspan)은 목소리에 대해 이렇게 규정한다. "이것은 내가 강조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그렇게 오랫동안 부정되어온 목소리와 언어, 이야기의 진실을 믿게끔 배우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적극 권장하며 힘을 부여해 주는 것이다."[219] 목소리는 힘과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의 힘은 권력이 아닌 인정받음을 의미한다. 목소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된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를 존중하며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이다. 목소리에 대해 참여자들은 이렇게 답변한다.

〈참여자 1〉

그러니까 초기에 서로 그것 때문에 이야기 하는데 그 분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거에요.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에요. 그래도 내가 사모잖아요. 저는 저 대로 사몬데, 예배 끝나고 집에서 쉬는데 사모한테 전화해서 그걸 따진다는 그 자체도… 제가 그 분 보다는 많이 어리지만은 그래도 사모잖아요… 그냥 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그런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아요.

전화를 끊어서 속상한 적이 또 있었어요. 총회장님이 저한테 처음 부임을 하고 11 월달에 첫 추수감사절이었는데 터키를 구워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때까지 미국 와서 터키를 한 번도 구워본적이 없고, 터키를 안 먹었어요.우리 식구 다 안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터키를 못 굽니다. 다른거 뭐 갈비라든지 다른거 해오라면 해올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젊은 사모님이 내 말 안 듣느냐'고 그러면서 누가 추수 감사절때 터키 먹지 갈비 먹냐고 딱 그러시는거에요. 그러면서 그 분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

[218] Christie Cozad Neuger, *여성들을 위한 목회상담*, 112.

[219] Miriam Greenspan, *A New Approach to Women and Therapy* (New York: McGraw Hill, 1983), 233.

주방에서 어느 교인이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뭐 도와드릴까요? 그러면서 그 말만하고 도와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때 다른 교인이 저한테 딱 하신 말씀이 뭐 도와줄까요? 그 말도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에요. 저는 그 말 듣는데, 제가 여기가 뭐가 딱 막히는 느낌, 아 그러면 나는 말도 하지 말고…

〈참여자 2〉

마음이 가장 불편한 경우는 교인들과의 관계죠. 그게... 이제 성도들간에 말이 나올까봐. 네 또 욕 얻어먹을까봐. 근데 저는 간섭이 심하다는 욕 얻어먹어도 괜찮거든요. 뭐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도와줄려고 했기 때문에 욕을 하든 그런 건 괜찮아요… 그냥 처음 드는 생각은 그냥 괘씸하다 이런 생각 밖에 안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의 *다른 목소리*라는책의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남성의 우월성에 묻어버린 여성의 목소리가 상실되어가는 현실을 직면하면서 여성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이론들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는 의미로 길리건(Gilligan)의 연구는 시작되었다.[220] 하지만 〈참여자 1〉의 목소리를 제한하는 권력 구조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 교인들 임을 지적할 수 있다. 아이러니컬 하게 사모를 힘들게 하는 교인들은 남성보다는 여성교인들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길리건(Gilligan)의 여성의 정체성의 특징을 친밀감과 돌봄에 있다고 규정하는 데에 모순을 제기한다. 길리건(Gilligan)의 이론으로 보면, 사모와 여성교인들과는 친밀감과 돌봄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여성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참여자 2〉을 통해서 보면, 교인들이 사모에 대해 함부로 욕을 하고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와주려는 사모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던가 뭔가 속셈이 있어서 잘한다'라는 등으로 사모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교인들의 주장이 배여있다.

[220] Carol Gilligan, *다른 목소리로*, 13.

사모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는 교회구조는 하위 주체의 목소리에 관심을 둔 학자인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Gayatri Chakravorty Spivak)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스피박(Spivak)은 2002 년 컬럼비아 대학의 여성과 젠더 연구소(Institute for Research on Women and Gender)가 주관한 학술대회에서 '서발턴은 말할수 있는가?'라는 에세이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는 하위주체인 서발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단초가 되었다.[221] 서발턴(subaltern)은 군대에서 하급 장교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러시아어로 번역될 때는 하급장교는 말할 수 있는가로 오역되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여기서 서발턴(subaltern)이란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의 지배 하에서 억압되어 있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스피박(Spivak)이 사용하였다.[222]

최순양에 의하면, 스피박(Spivak)은 "인도의 하위주체 연구자들, 탈구조주의학자 등등이 하위주체의 상황과 목소리를 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그 목소리를 더 삭제시키는 경우가 많음을 주목한다"는 것을 지적한다.[223] 즉, 서구 지식인이 하위주체인 서발턴의 경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침묵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최순양이 지적하는 것처럼, 스피박(Spivak)에 의하면, 가장 하위 주체의 목소리가 전달될 때는 그 위의 상부 주체의 권력에 의해 결정되어지고 이에 대해 스피박은 자신들의

---

[221] Rosalind C. Morris, "서문," in *서발턴은 말할수 있는가?*, Rosalind C. Morris, ed., trans. 태혜숙 (서울: 그린비, 2013), 11.

[222] Ibid., 42-51.

[223] 최순양,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 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 *신학논단* 72 (2013): 229.

욕망에 따라(그 욕망을 인식하든 못하든) 노동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고 재현하려는 이 시도를 인식론적 폭력(epistemic violence)이라고 부른다.[224]

다시 말하면, 인식론적 폭력이란 상부 주체의 권력자들이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서발탄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인들은 사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마치 상부주체의 권력자가 되어서 사모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인식론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나에 대해 자신도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었다. 논문 프로젝트 구두시험 중에 지도교수의 논문 수정에 대한 권면을 잘 듣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관찰하면서 경청이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는 것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 만큼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경청을 잘 하는 사람이 목소리도 잘 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생각되었다. 나는 토론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교육환경에서 자주 질문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면 교사로부터 질책을 받던 세대를 겪었다. 나처럼 사모들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목소리를 내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서투르다. 말하고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사모의 목소리는 어떠한가? 역할이 불분명하면 목소리도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 사모의 정체성은 목소리와 긴밀한 관계이다. 특히 교회공동체에서는 사모들의 목소리를 인정하는

[224] Ibid., 240-41.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사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사모들은 외롭다고 한다. 교회 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당당하게 낼 수 없기 때문이다.

D.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가부장제는 영어로‘patriarchy’라고 하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아버지라는 단어의 ‘patri’와 지배라는 단어의 ‘archy’가 합쳐서 생긴 단어다. 즉 ‘가족의 대표자인 아버지가 가족 구성원에게 행사하는 권위 혹은 지배’ 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학자들이 사용하는 가부장제의 개념은 단순히 한 가족 안에서 행해지는 아버지의 지배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남성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서 지배하고 여성들은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체계를 지칭한다.[225] 이는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처한 불균형한 힘의 역동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한 힘의 역동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진 베이커 밀러(Jean Baker Miller)는 현실세계 속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여성이 주요하고 때로는 남성과 동등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여성들이 해온 일은 가치 있는 일로 간주되지 않고 문화적으로 열등한 일로 취급되어져 왔다고 말한다.[226] 한국은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로 인해 19세기 말까지 여성교육의 목표는 여성의 삶을 가정에 한정시키고

[225] 한국여성연구소, *새여성학강의* (파주: 동녘, 2005), 22.

[226] Jean Baker Miller,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새로운 여성 심리학을 향하여*, trans. 김경순 and 안상님 (서울: 한국기독교가정생활사, 1988), 120-29.

가부장적 가정의 유지 계승을 위해 필요한 덕을 기르는 교양 교육이었다.[227] 남인숙은 조선시대 상황을 연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조선시대 양반가문에서조차 여성을 가르치지 않았던 이유는 딸은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고 지식을 활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제하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자마자 발생한 민족 전쟁과 경제적 곤란 속에서 많은 여성들은 의무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쳤으며 여자가 유식하면 순종적이지 않아 팔자가 세어진다는 기우가 여성들의 교육기회를 차단시키기도 하였다.[228]

여성들은 그 시대에는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사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비존재처럼 살았다. 그러나 남인숙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995년 양성평등 사회를 목표로 '여성발전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을 전후해 국가고시에 여성합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229] 남인숙의 설명에 따르면 오늘 한국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사모들의 위치는 종속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강남순은 "목회자의 부인들이 겪는 고충과 어려움은 유교의 영향"[230] 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교회 내의 유교적 가부장제의 산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씩 제거 해 나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인 목사, 사모, 교인들의 의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유교문화에 젖어있는 여성 차별에 대한 내면화도 분석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사회에서 종교로서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대체로 그 사회의 조직을 반영하듯이, 한국의 기독교도 뿌리 깊은 유교적 영향을 배제할 수

---

[227] 남인숙, "여성교육과 정책을 통해서 본 한국여성의 변화," *사회이론* 38 (2010): 67.
[228] Ibid., 68.
[229] Ibid., 68.
[230] 강남순, Feminism Theolory class, 2016

없는 상황이었다고 본다.[231] 교회에서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모든 활동의 배후에는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 같다.[232]

한 예로,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예수의 삶이 보여준 희생과 겸손의 의미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삶의 차원에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가정에서 보여줘야 할 덕목으로만 제한 함으로 여성에게 강요된 희생과 겸손의 덕은 결론적으로 가부장적인 요소를 더 강화시켜 준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233] 결국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순종이나 희생의 덕목은 아버지–남편–아들로 이어지는 가부장제 권위에의 복종을 여성의 덕목으로 강조하는 한국의 유교문화와 결합되어서 여성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강한 가부장제적인 체제[234]로 교회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남순은 이런 유교적 영향에 대해, 삼종지도(三從之道)의 문화라고 설명하는데 이 삼종지도의 정의는 일생동안 여성의 의무는 세가지 인데,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결혼 후에는 남편을, 그리고 남편의 죽음 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덕있는 여성의 길이라는 것이다.[235] 이런 문화 속의 영향 속에서 여성들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키워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강남순은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모의 역할과 지위에 끼친 악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여성은 한 사람의 개체적 존재로서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의존된 존재로서 간주되었고, 이러한 위계주의적 관계주의로부터 구성된 인간 이해는 교회 안에서도 부인의 위치는 남편의 위치보다 높으면 안되며, 남편이 지도력을 행사할 때 부인의 지도력은 희생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자연스러운 것 또는 '한국적'인 미덕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교회의 목회자의 부인은 교회에서 가장 다양한

---

[231]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97.
[232] 윤소정, "내가 꿈꾸는 교회," *한국여성신학* 75 (2012): 74.
[23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01.
[23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98.
[23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41-42.*

> 역할을 하면서도 교회의 구성원도 또는 지도자도 아닌 중간적 존재로서 그가 하고 있는 수 없는 일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전혀 인정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236]

강남순이 지적하는 것처럼 목회자 사모는 목회자 남편에게 의존하는 존재로서 다양한 역할과 사역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왔고 또한 자기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여 왔다는 일반화된 사실이 심층면담결과로 나타났다.

다양한 관계에서 유교적 영향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는 사모와 남편 목사와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 유교적 가부장제 영향을 보고자 한다.

〈참여자 1〉

교회에 관한 일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요. 얘기할 때마다 좋은 결과가 없었어요. 항상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얘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당신 그런 점에서 힘들었구나 이해하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가 남편하고 이야기 하다 보면 제가 더 나쁜 사람이 되고 어…제가 더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 안하고 싶은 생각이 딱 들어요… 저도 한…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저도 한 사람의 교인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도 교인의 입장에서 또 제 의견을 목사님에게 이야기 할 때가 있는데 목사님은 저의 의견을 전혀 안 들어줘요… 우리 목사님이 생각하는 사모는 그냥 그냥 말 안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 그냥 뭐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 모습인것 같아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런 것같아요.

〈참여자 3〉

결혼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는 그야말로 삼십 몇 년 동안 체크를 한 번도 안 쓰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은행에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다 감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몫도 제가 픽업도 정말 거의 안 하셨어요. 저희 목사님은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그것이 목사님 때문이란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을 블레임(blame)했다거나 이런 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그게 잘 한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

[236]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여성, 영성, 생명*, 124.

페미니스트들은 인류 역사를 볼 때 다양한 차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남녀간의 차별문제라고 지적한다.[237]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결혼 생활에서 남성지배적 체계가 구축된 생활이었다. 결혼 생활뿐아니라 모든 삶에서 남성의 절대적 우위를 강조하였다.[238] 이런 과거 차별문화의 영향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가정들도 '변형된 가부장제' 혹은 새로운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239] 목회자 가정들은 이와 같은 사회의 남성 지배적 체계와 함께 교회내의 유교적 영향이 더해져서 부부간의 수직적 관계가 더 강화되고 있다.

〈참여자 1〉은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과 교인들과의 갈등 문제에 관해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원하지만, 남편 목사는 교회 사역에 사모가 관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모의 의견에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늘 상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교회의 새로운 변화나 사역을 교인들을 통해 듣게 될 때 섭섭한 마음도 들 때가 있다고 한다. 이런 저변에는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남편 목사가 바깥의 일은 아내가 간섭하거나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유교적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자 3〉은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 경제적 활동 등과 같은 모든 가정의 문제를 자신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가정에서 목회자 사모는 남편이 목회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살림을 책임지고 자녀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

[237] Tong Rosemarie Putnam, *Feminist Thought 페미니즘 사상: 종합적 접근*, trans. 이소영 (서울: 한신문화사, 1995), 108.

[238] 정희성, "한국 기독여성의 가족 경험에 대한 고찰," *목회와 상담* 7 (2005): 195-97.

[239] 정희성, "한국여성을 위한 이혼 숙려 상담의 모색," *목회와 상담* 8 (2006): 132.

목회자의 개인 비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가정이나 부부가 함께 가정의 문제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다. 남편은 목회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라서 집안일은 사모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유교적 영향에서 나온 생각이다. 이런 유교적 영향으로 인해 사모들은 자신들이 희생당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전적인 희생을 하고 있다.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의 한 축으로는 남성목사 중심적 목회로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가져온 목회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유교는 남성주의 철학으로 남녀 관계 뿐아니라 부자관계, 군민관계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우주론적 용어로 볼 때 하늘과 땅의 개념으로 해석하여 명확한 위계질서를 기초[240]로 본다. 한국교회는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의 영향으로 담임목사 중심의 목회로 발전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목사라는 의미는 역시 유교의 영향으로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다. 이런 목사중심적 목회에 대한 반성의 시각이 교회 내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조혜진은 100주년 기념교회의 담임목사인 이재철목사가 자신의 후임으로 4명의 공동목회자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한 사람의 제왕적인 담임목사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 되던 시대는 끝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241] 이렇게 담임목회자가 홀로 교회를 끌고가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동안교회 김동호목사도 동의한다.[242] 하지만

---

[240] 마르티나 도이힐러 and 윤성진, "유교에 기초한 입법화와 이것이 여성의 지위에 미친 결과," *역사와 경계* 44 (2002): 159.

[241] 조혜진, ""제왕적 담임목회 시대는 끝났다"..100 주년기념교회, 4 명 공동목회 시대 예고," *CBS 노컷뉴스*, May 15, 2017, http://christian.nocutnews.co.kr/news/4784413 (Assessed Jan. 24, 2018).

[242] 강석근,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기독교사상* 43, no. 11 (2000): 81.

한국교회는 여전히 담임목사가 제왕적 위치에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많은 한국교회들의 의식은 담임목사 중심의 교회를 지향하고 있다. 예수님의 섬김을 강조하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한다. 목사중심적인 사고는 여성과의 관계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사모들에게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다.

〈참여자 2〉

저는 이제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을 저는 좇아가는 거. 그게 순종해서 가는거. 그게 도와주는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사역은 아니야 그러면 저는 바로 접어요. 목사님 허락하에 사역 하고 있는 것같아요…
제가 사실은 성도들 봤을 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이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니까 교재를 이런 것을 가지고 하지라고 하면 바로 순종해요. 목사님의 통제를 받아 가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독창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목사님의 지도하에서 사역하는 것을 만족해 하죠. 하나님이 목사님을 제 머리로 세웠고, 또 하나님이 질서 속에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많았고…

〈참여자 3〉

돕는 사역,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런 내 할 일은 목사님에게 심방이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 또..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뭐... 뭔가를 한 가지를 집중할 때 뭐 운전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별로 힘들어 한다. 이러면 제가 그런 거를 도와드리는 것. 또 교인들과 이렇게.. 어... 디테일 한 부분들 좀 이렇게 어... 제가 도와드리는 것. 그런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좀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목사님은 어… 이름은 잘 외우지 못하는데 얼굴이나 이런 것은 참 잘 아세요. 그러면 저는 이름을 외우는 것이 참 강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외워서 목사님에게 심방이나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

〈참여자 2〉는 남편의 의견이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항상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하며 남편의 지시나 지적에 늘 민감하다. 하지만 부부 모두는 하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면서 때로는 남편 의사와 다른

자신의 의사도 관철될 수 있는 사이가 부부의 사이라고 생각한다. 늘 남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아내의 능력을 사장시킬 수도 있고 자발적인 사역을 통제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3〉은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사모인데 늘 남편인 목사의 지도하에서 사역하고 있다. 교회의 체제가 담임목회자 우선이기 때문이다. 사모들 자신도 특정한 개성이나 재능 등을 계발하고 독립적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참여자 사모들은 모두가 사모의 역할은 남편인 담임목사의 사역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정되어 생각하고 있다. 물론 사모들의 '목사의 조력자(support role)' 역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단지 부속의 개념으로 사모 사역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여성의 다양한 사역의 은사와 능력을 사장시키는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목사중심적 목회에 영향을 준 요인 중의 하나가 유대/남성주의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성서 편집자들의 의도이다.[243] 남성 신학자인 레너드 스위들러(Leonard Swidler)는 페미니스트를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며, 여성을 남성처럼 존엄한 인간으로 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면서 예수는 페미니스트라고 분석한다.[244] 하지만 예수의 12 제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12 명의 남성제자'들에게 집착하는 것은 예수의 의도가 아니라 유대/남성중심적 시각에 젖어있던 성서 편집자들의 오류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견해이다.[245] 결국 여성 제자들과 사도들의 행적을 보여주는 방대한 자료들은

---

[243]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66.

[244] Leonard Swidler, "Jesus was a Feminist," *Catholic World* (January 1971):177-83, cited in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65.

[245]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66.

경전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246] 또한 늘 여성차별의 구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린도 전서 14:34) 와 '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고린도 전서 11:3)라는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로 전락시키는 성서구절들이 바울이 실제 쓴 것이지 아니면 후대의 편집자들이 편집한 것인지 아직도 논란 이 계속된다.

강남순은 이러한 구절이 후대에 첨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는 바울은 여성이 교회에서 예언하고 가르치는 것을 인정했다는 성경구절인 사도행전 2 장 18 절 말씀인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247] 이런 남성위주의 성서해석은 아직도 자연스럽게 여성인 사모들에게까지 받아들여져 있는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모들의 성경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이런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참여자 3 명의 사모들은 성경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념으로 목사중심의 목회의 타당성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요인이 사모들의 자기의식의 주체성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부족했다.

E. 고정관념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만나는 사모들에게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교인들과의 관계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참여자 1, 2, 3〉도 예외가

[246] Ibid., 266.
[247] Ibid., 229-70.

아니었다. 모두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문제가 가장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처럼 교인들과의 관계가 힘이 드는 이유를 심층 면담한 결과를 보면, 교인들이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독립적인 사역자가 아닌 목사의 비서와 같은 존재)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은 이렇게 답변한다.

〈참여자 1〉

… 그러면서 이제 계속 도와주었는데… 이 분들은 그냥 말하는 사모가… 그렇게 뭐랄까… 얘기하는거 조차도 다 지적으로 듣는거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그게 다 잔소리, 다 자기네들의 지적질하는 걸로 다 받아들이는거에요.

교인들에게요… 글쎄요 인정이나 격려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인정까지 가기에는 나는 바라지도 않구요. 나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나 비난이나 손가락질 그런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참여자 3〉

네 외롭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너무 유치하고 웃기는 거지만 만약에 저는 빨간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빨간 머플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하면 누군가에게 이것이 말거리가 되겠다 하면 절제해야 되고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싶은데 인제 모든 사모님들이 겪는 경험이겠죠, closet 을 문을 열면 몇 번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하죠.

〈참여자 1〉은 교인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데, 교인들의 고정관념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교회는 연령층이 높은 반면 사모의 연령은 낮았는데, 교인들의 의식에는 젊은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다. 젊은 사모는 일할 때도 경솔하고 왠지 믿음직 못하다는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사역에 어려움을 겪을 뿐아니라 존재로서의 주체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자 3〉을 통해서 보면, 교인들이 사모의 옷차림이나 태도 등 외모에 대해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모는 옷을 수수하게 입어야 된다'라는 식의 '이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진 교인들로 인해 사모들은 늘 힘들어 하며 시선을 의식해야만 하는 사모들의 고충이 엿보인다. 더군다나 이런 부정적 시각의 고정관념을 가진 교인들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교인들의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사고는 이민생활이라는 특수한 상황과도 연결된다. 한국을 떠나 미국에 정착한 1세대 교인들도 역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한인 이민자들은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면서 문화의 충돌 속에 갈등하며 살고 있다. 이에 대해 권진숙은 한인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 주요한 갈등 중의 한 요인으로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끊임없는 상관 관계적으로 소통이라고 한다.[248] 다시말하면 어떤 때는 한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며, 어떤 때는 미국 문화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런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는 한인 소수 이민자들의 문화와 미국 문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주제로한 이정용의 책 *Marginality*에서는 In-between, In – both, and In – beyond의 모델로 설명한다.[249] 한국 목회신학자 이희철은 이정용의 모델을 이용해서, 한인 이민 여성이 경험하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분석했다:

> In – between의 입장에서 보면, 한인 이민 여성내담자는 한국을 떠나와 있으니 한국인이 아니다. 또한 이 내담자는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미국인이므로 미국인이 아니다. 이 여성 내담자는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허공에 떠있는 상태와 같다.

---

[248] 권진숙, "여성주의 목회신학에서 바라본 상호관계," *목회와 상담* 18 (2012): 11.

[249] Jung Young Lee, *Marginality: The Key to Multicultur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2-63.

> In – both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녀는 한국인이기도 하고, 미국인이기도 하다. In – beyond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한국인이지만 미국화 되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보기에는 미국사람이고, 그녀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 인종이기 때문에 미국인으로 보기에는 한국 사람이다.[250]

대개 이민 1세대의 교인들은 In-between의 삶을 살아가므로 불안한 정체성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도 사모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 목회자와 교인, 교인과 교인들의 분열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은데(동양선교 교회 2009년 분쟁 사태, 나성영락교회 2017년 분쟁사태 등)이와 같은 갈등도 이민자라는 불안한 정체성으로 인한 갈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중 가치 기준의 이민자들의 고정관념이 본인의 자아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이경식은 기존의 자아 정체성 척도를 비판하고, 복수적인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직각 모델을 사용하여 다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복수 정체성을 계발시킬 수 있도록 직각 모델을 사용하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직각 정체성모델이란 다문화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정체성이란 둘 중의 하나를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안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적인 가치와 미국적인 가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의 정체성을 한인 또는 미국인으로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이면서도 미국적인 자신의 자아 정체성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자아 정체성 척도에서 복수 선택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김치가 좋으면 한국인이고 스테이크가 좋으면 미국인이라고 하는 단순한 가치 선택의 아니라 김치와 스테이크 모두를 즐기고 살아가는 복수 정체성, 복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251]

---

[250] Jacob Hee Cheol Lee, "Shame and Pastoral Care: Implications from an Asian Theological Perspective," *Pastoral Psychology* 57(2009): 257.

[251] K. Samuel Lee, "Korean American Cultural Identifications: Effect on Mental Stress and Self Esteem,"(Ph.D. diss., Arizona State University, 1995), 53.

이와 같은 직각모델은 복수 정체성을 통해 한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역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이 직각모델이 잘 활용된다면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생각의 폭과 틀이 넓어지므로 첨예한 대립을 축소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살생하는 이상적인 이민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복수정체성 이론은 교회공동체가 갈등없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이므로 사모뿐아니라 목회자와 교인 모두가 복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IV장에서는 5개의 주제– 주체로서의 정체성, 고정된 자아 개념, 목소리,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 고정관념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결론과 제안으로 본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사모들은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의 남성중심주의로 인해 성차별의 구조 속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음이 심층 면담을 통해 드러났다. 그들은 사모라는 호칭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뚜렷한 정체성이 없이 OOO의 아내로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가면서 사모의 이름에 관심을 두지 않는 대부분의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 한다. 유교문화가 만들어낸 사회의 내면화는 사모는 이래야 된다- 즉, '사모는 조용해야 한다', '사모는 교인들의 요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안된다', '사모는 목사의 의견에 순종해야 한다' 등의 일반적인 사모에 대한 교인들의 고정관념과 왜곡된 사회의 시선으로 사모의 길은 더욱 힘하게 느껴지며 건강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반향으로 시작된 페미니즘은 여성인 사모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페미니즘에서 중요한 주제어인 4가지 주제-주체로서의 정체성, 고정된 자아 개념, 목소리,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와 인지행동이론에서 분석한 고정관념이 사모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논증하였다.

첫째, 사모들은 주체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즉 존재로서의 정체성이 사모라는 역할로서의 정체성으로 인해 손상되고 있으므로 나라는 자기 의식[252]에 영향을

[252] 주체는 자기의식을 가짐으로써 고도의 역능(力能)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행복하며, 타자와의 불연속이라는 근원적인 소외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불행하다. 이우정, *주체란 무엇인가*, 18.

미친다. 자기의식을 통해 행복을 느끼려면, 존재와 역할의 정체성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어야 하는데, 사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사역이 과중한 짐이 될 때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다.

둘째, 본질주의에 근거한 고정된 자아개념으로 사모들은 피해를 입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모들와 교인들 모두 고정된 자아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나도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과정에서 고정된 자아 개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본질주의 사고에서부터 출발된 것임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었다. 하지만 논문 구두시험 과정에서 내가 여성성과 남성성의 정체성으로 구분된 연구를 이론적 배경을 사용하려고 했다. 이 같은 모순은 학습된 것이 반드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 나처럼 사모들도 남녀의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본질주의적 사고의 틀은 고착화되기 쉬우므로 사모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목소리는 자기를 대변하는 중요한 관계의 수단이다.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과 공감을 통해 자기의식을 키워나간다. 그러나 교인들 대부분 사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사모들이 상처를 받고 관계의 어려움을 느낀다. 코즈모폴리터니즘적 시선-예수적

시선[253]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사랑이라는 대명제 앞에서 화해와 용서가 일어난다. 이런 관계의 회복은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넷째, 유교적 가부장제의 문화는 사모들에게 강요와 억압을 하게 되는 원인이다. 가부장제 문화의 특징인 내면화에 대해 강남순은 이렇게 설명한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열등성을 내면화하고 남성에서의 의존성을 제 2 의 본성으로 여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에 대한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여성들간의 분열과 시새움이 일상화되는 가부장제적 매카니즘을 저항없이 고수하게 된다."[254] 그러므로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모를 향한 여자 교인들의 차별과 억압의 피해자가 바로 사모일 경우가 많다.

다섯째, 고정관념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저항으로 특별히 교인들의 고정관념은 사모를 자기 중심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편견이 사모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모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u>사모는 역할에 대한 상실감이 있다</u>. 정체성은 존재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서술적 주체인 역할로서의 정체성이 균형있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자 3 명의 사모들은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교인들은 사모들의 영적 권위(dignity)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즉 권위에 대한 상실은 역할에 대한 상실이기도 한다. 상실에

[253] 강남순은 나와 다른 이들의 국적, 인종, 성별 등과 관계없이 모두를 고귀한 '인간'으로 보는 시선이 코즈모폴리터니즘 시선이고, 이 시선을 기독교적 표현을 전환하면, 모든 사람을 신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로 보는 것이 예수적 시선이다라고 했다.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31.

[25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305.

대한 정의를 케니트 밋첼과 허버트 앤더슨(Kenneth R. Mitchell and HerbertAnderson)는 6 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

> 1) 물질적 상실은 한 사람이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던 구체적인 대상이나 중요하게 소속되어 있던 친근한 환경들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관계의 상실은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특별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들 안에서 이야기하고, 함께 공유하고, 삶의 주제들을 만들어 가고, 때로는 싸우며, 그리고 그 밖의 요소들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회들이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 3) 심리 내적 상실은 정서적으로 중요한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상실하는 경험이고, 무엇을 해야만 혹은 무엇을 가져야만 된다는 것에 대한 가능성들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나아가 미래에 대한 꿈이 죽어가는 것이다. 4) 기능적 상실이란 상실로 인한 심각한 슬픔이 애도자의 몸의 근육과 신경들의 기능들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5) 역할의 상실은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한 사람의 특별한 역할이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6) 사회 조직의 상실이란 각 시대에 따라 발전되어온 인간의 행동의 양식들을 담고 있는 제도로부터 상실로 인해 상호작용을 못한 채 낯설게 분리되어지는 경험을 의미한다.[255]

위의 6가지 상실감에서 나타나는 다섯째인 역할의 상실로 인해 사모들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역할이나 지위를 잃어버리므로 사모들은 자기의식이라는 주체를 나타내는 정체성도 함께 흔들리게 된다. 심층면담한 사모들은 가장 힘든 일이 교인들과의 관계라고 답했다. 교인들의 근거없는 소문, 무시하는 태도나 언행 등을 통해 사모들은 영적 권위(spiritual dignity)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호소한다. 길리건(Gilligan)의 보살핌의 윤리에 따르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살핌의 의무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특성이 있다고 한다.[256] 하지만, 심층면담을 통해 나타난 사모들의 특성에서 보면 여성의 특징인 보살핌의 윤리에 근거로 교인들과 돌봄이나 친밀감의 관계형성이 유지되는

---

[255] Kenneth R. Mitchell and Herbert Anderson,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83), 18-19, quoto 김동영, "상실과 애도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해," *신학논단* 79 (2015): 125-59.

[256] Carol Gilligan, *다른 목소리로*, 64.

것이 아니라 사모라는 역할 때문에 마지못해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인해 관계형성이 사모에게는 짐(burden)이거나 자신이 지고가야하는 십자가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영적권위는 리더십과 연결된다. 그들은 곧 리더로서 인정을 못받고 있다고 단정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리더십이란 예수그리스도의 서번트 리더십(servant leadership) 이다.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은 로버트 그린리프(Robert K. Greenleaf)가 그의 저서에서 처음 제시됐다.[257] 그의 저서에는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이 예수에게서 유래하였다는 것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 개념은 예수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예수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의 사명을 다 하셨다. 그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요 10:10)고 선언하셨고 히브리서에는 이 세상에서의 예수그리스도의 삶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7-8)"라고 요약하였다. 이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서번트로 오셨고 죽기까지 서번트로 삶을 마감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258] 서번트 리더십 그린리프센터(Greenleaf Center for Servant Leadership)의 연구소장이기도 한 그는 서번트 리더십이란 "타인의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257] Don M. Frick and Larry C. Spears, *On Becoming a Servant Leader: The Private Writings of Robert K. Greenleaf*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6), cited in 정충영,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예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4, no. 2 (2006), 1-23.

[258] 정충영,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예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4, no. 2 (2006), 2

종업원·고객·커뮤니티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리더십"으로 정의한다.[259]

이와 같은 서번트 리더십은 사모뿐아니라 목회자에게도 요구되는 현실이다. 목사중심의 목회에서는 서번트 리더십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헤드십(Headship)이 있는데 담임 목사 중심의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에 속한다.[260] IV장에서 지적한 대로 목사 중심의 교회에서 벗어나려면 헤드십이 서번트 리더십으로 바뀌어야 한다. 한 예로 버뱅크에 위치한 한인 교회인 새길교회는 담임목사 중심의 목회를 거부한다. 3명의 목사들이 협력하여 사역하는데 그들은 사례비도 없이 봉사한다. 또한 설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교인들과 함께 담당한다. 이런 체제의 교회가 서번트 리더십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회라고 본다. 이런 교회로 발전되려면 목사와 사모의 리더십이 서번트 리더십의 개념으로 정립되야 한다.

서번트 리더십의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모의 재능과 은사가 제대로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교회마다 목사의 아내라는 위치인 사모에게는 부여된 역할이 있다. 심층면담한 3명의 사모들이 사역도 각각 다르다. 3명의 참여자 사모 중의 어느 사모는 교역자 회의에 함께 참석하여 교회의 행정적인 일에 관여한다. 또 다른 참여자 사모는 교회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teaching) 사역에 주력한다. 또 다른 참여자 사모는 피아노 반주와 주방사역에 관심을 둔다. 이런 사모의 사역이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리더십을 인정받아 영적 권위를 되찾고 상실감에서 벗어나 정체성을 회복할 수

---

[259] Ibid., 6.

[260] Ibid., 헤드십(Headship)이란 서번트 리더십이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공식적인 지위에 부여된 권한을 사용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이끌어 가는 방식의 리더십이다.

있을까? 먼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사모의 적성에 맞는 은사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이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후에 남편 목사와 상의를 거쳐 공동체의 동의를 얻어 사역하는 것이 절차라고 본다. 사모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진 교인들은 사모가 행정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교인들은 사모가 가르치는(teaching) 사역을 할 만큼 전문지식을 갖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적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모 사역의 범위를 교인들과 함께 상의해서 합의된 사역을 사모가 진행하면 교인들과의 마찰이나 영적 권위에 대한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모와 목사와 교회간에 사모의 역할에 대하여, 또 교회가 바라는 사모의 역할에 대하여 의논이 있어야 한다. 즉 대화를 통해서 목사가 생각하는 사모의 역할과 사모가 원하는 역할, 그리고 교회가 기대하는 역할들이 서로 조정되야 한다. 교회마다 목사와 함께 하는 교회리더 그룹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연합감리교회에는 목회협조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사모들의 역할에 대해 서로 조정하며 범위를 정한다. 그런 절차가 진행되면 사모가 사역하는 것도 자유롭고 교인들의 고정관념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사모들의 상실감은 역할의 상실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상실과도 연결된다. 먼저 남편의 상실이다. 심층면담의 결과을 분석해 보면, 그들의 사용하는 단어에서 '내 남편'이라는 호칭은 없고, 모두 '우리 목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남편을 부른다. 결국 부부사이의 관계보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미지로, 남편 이전에 목사라는 개념으로 남편을 이해하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상실감을 발견할 수 있다. 자녀 라이드(ride)도 대부분 사모 몫이다. 이삿짐을 정리하거나 집안 가구를 배치할때도 아내인 사모 몫이다. 가정의 일은

사모들이 모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참여자 3〉의 사모는 자녀들이 필요할 때 아빠가 없었다고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 이야기 했다고 한다. 아빠가 없었다는 것은 육신적으론 있었는데도 모든 생각이 다 목회에 집중되었었기 때문에 아빠가 곁에 있어도 없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남편이자 아버지 영역의 상실이다.

주체성 상실이다. 즉, '나의 나됨'을 나타내는 자기 의식이 필요하다. 교인들은 사모를 한 인간(human)으로서 여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모라는 역할로 혹은 목사의 아내라는부수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모에게 긴장을 준다. 사모들도 자신만을 위한 여가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운동이나 취미, 여가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민생활하는 교인들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한국을 떠나 온 그 시점에 머물러서 사모는 늘 목사의 뒷 일을 감당해야 하며 교인들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인들의 고정관념은 사모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 주방에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유교적 가부장제 문화로 이미 내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와 가정에 대한 희생에 대해 익숙해져 있는 사모들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사모도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려는 생각을 사치라고 여기는 사모도 있다. 늘 헌신하고 희생하는 현모양처의 사모상을 사모 스스로도 내재화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모들의 의식에 대해 벨레릭 세이빙(Valeric Salving)은 이렇게 경고한다.

> 여성이 온전한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어주는 순간과 시간, 날들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순간과 시간, 날들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성은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내어줌으로써 그녀 자신의 독특성을 완전히

>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그녀는 그녀 자신에 대해, 동료 인간에 대해, 혹은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가치가 없는 텅빈, 거의 제로상태로 될 수 있다.[261]

그러므로 사모들은 자신만의 여가와 공간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 하지만 사모의 주체성 상실의 문제는 사모 개인의 문제로만 해결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에서 내재된 고정된 자아개념, 성차별주의 등에 의한 불균형한 억압과 차별의 구조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때이며 사모뿐아니라 사회구성원, 교회구성원, 남편과 가정 등 우리 모두에게 변혁이 일어나야 할 때이다.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사모들의 심층면담 분석 결과 사모도 목사의 의식과 마찬가지였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의식이다. 교회의 일과 하나님 일과의 분리가 사모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목사와 사모가 늘 교회 우선의 선택을 하므로 가정의 자녀들은 희생되고 있다. 예를 들면 〈참여자 3〉의 사모는 심방다닐 때 마다 두 자녀를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자녀들이 걸어서 집에 들어간 적이 별로 없이 대부분 안고 들어갔다고 한다. 학교 끝나면 차 안에서 숙제 하고, 차 안에서 먹고, 심방갔다가 저녁때 집에 온 가족이 함께 왔다. 새벽예배도 자녀들을 동반해서 자녀들이 교회 본당에서 잠을 자는 생활의 반복이었다.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한 결과이다. 온가족이 목회를 하는 결과가 된다. 목회자의 목회철학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하며 가정의 일이 결코 교회의 일보다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시정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만 국한 되지 않는다. 가족과 자신을 챙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

[261] Valerie Saving Goldstein, "The Human Situation: A Feminine View," *Journal of Religion* (April 1960):108, cited in 김필진, "여성의 전인치유를 위한 여성주의 목회상담," *목회와 상담* 8 (2006): 67.

의식은 한국교회의 70-80년대 성장기 목사들의 메시지의 영향이다. 그 당시 목사들은 교회 일을 우선적으로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것이다"(마 6:33)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설교에 집중했다.

사모들도 대부분 오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 교회들은 교인들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명목아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은 시각은 목사와 사모의 목회철학과 신학적인 변화를 통해 재정립될 부분이다.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니다. 유물론적 사고가 기독교내에서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결과가 교회건물에 대한 교회의 개념이다. 늘 사모는 교회당에서 많은 기도를 해야 하며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해야만 믿음 좋은 사모로서 인정을 받는다. 교회 밖에서 사모가 노숙자 돕기나 양로병원 사역들을 하면 교인들은 사모의 개인적인 사생활의 일로 연결지으려는 경향이 있다. 반드시 본교회에서 사역하는 것만 사역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교회공동체의 모습이다. 나도 그중의 한 사람이었다.

내가 몇 년전에 새벽기도 가는 길에서 경험한 일이다. 운전하며 교회로 가는 길 모퉁이에 환자가 쓰러져 있었다. 순간 차를 멈추고 그 환자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는 태도를 하려는 동시에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너 지금 차를 멈추면 새벽기도 늦거나 못 갈꺼다." 순간 갈등이 있었다. 목회자가 새벽예배를 빠지는 상황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으로 교회로 향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도 죄책감이 든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일까라는 갈등을 하게 된 시점이기도 하다.

또한 모이는 인원수에 따라 교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도 잘못된 목사의 목회철학이다. 목회자 모임에 참석하면, 자신이 사역하는 교회규모(size)를 반드시 물어본다. 숫자와 건물 등은 사실 우리의 믿음과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교인들, 목회자, 사모들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로 인해 탈진하게 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자부심으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잘못된 목회철학이나 신학관은 목사나 사모뿐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많은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연구참여자 사모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신앙과 결부시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참여자 사모들의 의식을 보면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지배적이다. 교인들과의 갈등문제 해결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힘들게 하는 교인들에 대한 인식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며 기도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갈등의 문제를 객관화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이다. 이것은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제로 국한함으로써 더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갈등해소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사모들은 더 희생하고 더 섬기며 돌봄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도 기도 부족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한 결과로 〈참여자 2〉는 세상의 것들을 세속화하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힘들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모는 잘 섬기고, 대접하고, 품어야 한다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 인식은 점점 더 강화되어서 사모들의 사역이나 삶이 힘든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사인(sign)이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에

치중한다고 한다. 자기 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여가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한다. 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말씀과 기도에 할애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말씀과 기도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자책한다. '항상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은 늘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를 지속한다. 노력해도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함을 사모들이 경험하길 원한다. 하지만 이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평가는 만족감이 없다. 본인이 숫자 10 에서 1 로 볼 때 만족도는 5 라고 평가절하 하는 것도 삶에서 자신에게 요구되어지는 기준이 높기 때문에 긴장하는 모습이 보였다. 서로 다른 개인의 곤고하고 힘든 이유가 말씀과 멀어진 상태라고만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삶의 목표가 되며,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는 삶은 매우 귀한 삶이다. 하지만 너무 바쁜 삶을 살면서 자신의 기대치 보다 말씀을 못보고 있다는 자책감은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만 계시지 않고 무소부재하셔서 자연속에서도 말씀하시고, 내 안에서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세상에서도 계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더 크고 넓은 자유함을 느끼기를 기대한다.

배재욱은 인간 존재의 위대함과 고귀함은 생명에 있다고 강조한다.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생명의 기쁨과 바른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다(시 51:10-12).[262]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262] 배재욱, "신약성경의 생명 사상에 대한 고찰," *선교와 신학* 22 (2008): 45-82.

한다. 모든 문제를 신앙화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더 봐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고정관념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사고의 틀을 넓혀주는 실천신학이나 상담과 같은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 나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클레어몬트에서 실천신학을 공부하면서 율법적이고 타협하지 못하는 고정된 본질주의가 조금씩 변화된 것 같다. 하지만 본 연구프로젝트 준비 중에 나에게 아직도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룹으로 실천신학을 공부하는 모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일반 전문직은 보수교육과 정기교육을 통해 자신의 기술을 더 계발하거나 신기술을 체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목회자들은 강제성 있는 보수교육이나 정기교육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사모의 지지 그룹(support group)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룹안에서 삶의 다양한 부분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교인들과 소통하므로 일상생활속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눔의 시간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목회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이다. 참여한 사모들의 공통적 문제이기도 하다. 교회에서 목사는 사례비를 받지만 사모들이 사역한다고 해서 사역비를 제공하는 사례는 이민교회에서는 흔치 않다. 하와이의 어느 미국교회는 목사와 사모의 사례비를 따로 책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모의 교회 사역에 대해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늘 경제적인 압박속에서 이민교회의 사역자들이 생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모의 직업에 대한 이해가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자 2〉의 사모도 경제적 이유로 직장을 구했다. 자신의 전공은 아니었지만 이민와서 유아교육과를 수료하고 유치원에서 교사로 일을 한다. 전에는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달란트가 있는지 몰랐는데 교사를하면서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사모는 직장 생활로인해 교회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잘 조정해서 직장 생활과 교회 사역과의 균형을 잘 이뤄나가고 있다.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감은 건강한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사모들도 자기 계발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자기 영역을 찾아가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다. 교인들의 삶을 이해하므로 그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도 있어서 오히려 사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체성 회복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 활동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인들도 사모가 교회 일에만 머물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사모의 사회생활을 지지하므로 사모 자신도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한다.

사모들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사역해야 한다. 소명은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명이란 본래 기독교적 맥락에서 유래한 개념으로 초월적인 존재의 부름을 통해 자신의 은사와 환경에 적합한 일이 주어진다는 종교적 의미의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263] 권오현은 기독교적 문맥에서 출발한 소명의식은 현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으며 그 정의가 수정되고 확장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서, 종교적인 소명의식이 운명론과 의무수행을 전제하고 있으나, 현대적 소명의식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일에서의 가치와 의미추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264] 소명의식은 단지 사모와 목사에게만 한정지어진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의식이다.

---

[263] M. Weber, *Protestantische Ethik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trans. 박성수 (서울: 문예출판사, 1996),10

[264] 권오현 and 한재희, "여성기독상담자의 소명의식에 대한 실존적 특성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 no. 1 (2017): 9-42.

〈참여자 1〉의 경우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현재의 사역에 만족감이 적다. 사모로서 부여된 사역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모들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사역해야 즐거움을 되찾고 부여된 역할의 정체성과 존재로서의 정체성에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럴 때에 건강한 자아정체성이 형성된다. 〈참여자 1〉은 성경통독 강좌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고 자신도 성경통독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길 원했다. 하지만 교회공동체의 환경으로 인해 가르치는 사역(teaching)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남편인 목사와 교인들의 이해와 격려로 사모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사모로서 보람을 느끼며, 자신감을 통해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사모들은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기 위치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하고 있는 사역을 점검해 보고 또한 내가 무슨 사역을 잘하는지, 좋아하는 사역은 어떤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모들은 교회에서 필요한 사역이나 일손이 부족할 때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사모들이 사역에 동참하기 쉽다. 하나님이 사모로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생각에만 머물러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닌데, 무슨 일이던 맡겨진 일이나 교회에서 필요한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지치고 힘들게 되어서 결국은 정체성을 혼란하게 할 수 있다. 사모들은 목사를 돕는 역할(support role)을 한다는 것에 대해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돕는 역할이 자신이 잘 하는 일인지,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은 중요하다. 사모는 돕는 역할이라는 중압감으로 은사나 능력과는 상관없는 사역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소명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사역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시각으로 바울서신의

‘예수 안에서’의 의미는 예수의 삶과 가르침이 지시하는 정신, 즉 타자를 향한 사랑과 환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책임과 연대의 삶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265] 사모들의 소명은 ‘ 예수 안에서’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다.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정신으로 주변인들, 소수인들을 ‘연민의 시선’[266]으로 보살피며 , 예수님처럼 서번트리더[267]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소명의식을 가진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한 사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사모들은 사회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모들은 사모라는 호칭에 대해 스스로 부담을 가지고 있다. 참여자 중에 어떤 사모는 사모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힘들어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과 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에서 사모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는 있다. 상담에 관심이 많은 C 사모는 상담수업 클래스에서 그룹상담 실습을 할 때,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자 클래스메이트(classmate) 들이 사모도 그런 고민을 하느냐면서 의아해 했다고 한다. 그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사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한다. 그 이후 부터는 클레스메이트(classmate)들과 거리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이처럼 세상은 사모를 성직자인 남편 목사를 바라보는 동일한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회에서 적응하는 문제가 쉽지 않다. 사회의 사모에 대한 고정관념도 바뀌고, 사모 자신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

[265]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137.

[266] 강남순은 예수의 시선은 모든 인간을 신의 자녀로서 고귀한 존재로 본다고 전제하여 예수의 타자를 향한 시선을 ‘연민의 시선’이라고 규정하며 이 ‘연민의 시선’은 한 개별인을 제한하는 국가적 경계나 종교 또는 인종적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Ibid, 148.

[267] 예수그리스도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 서번트리더를 규정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바뀌어야 한다. 사회에서 적응력이 떨어지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위축된 모습은 자신감을 잃게 되므로 자아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참여자 2〉 사모는 직장에서 사모라는 이유로 혜택도 받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시간조절도 가능하고 급여도 만족하게 지급해 준다. 그렇지만 사모 자신도 사모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늘 사모라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식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 사모는 목사처럼 성직자가 아니다. 사모는 단지 성직자의 아내일 뿐인데 사회에서 사모는 목사와 동일한 성직자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사모를 사회에서 경직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융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사모에 대한 사회에서의 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또한 사모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

목회자 가정은 교회와의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사모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에 민감하다. 교회의 전반적인 일과 교인들의 사정들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강박감과 부담감이 있다. 그렇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게으르다는 생각을 한다. 사모는 목사처럼 매일 새벽기도에도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고정관념이다. 사모가 목회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모가 모든 일을 알고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모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한다. 사모는 가정에서의 할 일도 있다. 자녀를 양육하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귀한 사역이다. 이경식에 의하면, 미국에서 아이들 식사 준비하고 ride

해주고, 청소 등 가사 일을 따져서 계산하면 1 년에 20 만불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한다.[268] 이런 귀한 사역도 교회사역과 버금가는 귀한 사역이다.

〈참여자 3〉의 사모가 자녀들을 데리고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자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자녀들도 교회의 희생양이 되서는 안된다. 적지 않은 목회자 자녀들이 부모의 교회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고 가족의 부제를 경험한다. 목회자 가정에 사생활보장이 어렵다는 의미는 리와 발스윅(Lee and Balswick)의 *유리집에서의 삶(Life in a Glass House)*[269]이라는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목회자 가정은 마치 유리처럼 환히 들여다 보여서 사생활(privacy)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을 의미한다. 강연정은 사모의 사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모든 인간은 자신만의 공간과 생활이 확보되어지는 최소한의 공간과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속에서 평안함과 안전감을 느끼게 된다. 개인의 사생활이 간섭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며 긴장을 풀 수 없게 되어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보면 신체적 혹은 심리적 손상을 입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생활의 침해를 느끼는 목회자 가족들 특히 사모들 가운데 소화기 장애나 심장혈관계 장애, 두통이나 불면증 등의 신체적 질병과 편집증, 강박증이나 대인 관계 불안등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270]

이처럼 목회자 가정의 사생활이 보장되지 못할 때 사모의 정체성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가정은 한 개인의 모든 생활과 사역의 기초가 되는 곳이다. 목사도 교회에서는 공인이지만 가정에서는 한 개인으로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교인들의 의식도 중요하다.

---

[268] 이경식, Cognitive Behavior Therapy and Pastrol Counseling independent Study 강의 내용, Feb. 2018.

[269] C. Lee, and J. Balswick, *Life in a Glass House*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9).

[270] 강연정, "목회자 자녀의 건강한 자아형성을 위한 상담의 과제," *한국기독 교상담학회지* 9 (2005): 118.

더군다나 사모는 공인도 아닌 목사의 아내일 뿐인데, 가정에 와서까지 교인들이 시선을 느낀다면 강연정의 연구처럼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목회자 가정을 대한 건강한 거리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사모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연구하여, 사모들을 돕기 위한 7 가지 목회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7 가지 요인은 아래와 같다: 1) 사모라는 역할의 상실감이다; 2)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견해이다; 3) 모든 일을 신앙화(Religionlization) 한다; 4) 경제적인 문제이다; 5) 사모들에게 소명에 따라 사역해야 한다; 6) 사모들은 사회에서의 적응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7) 목회자 가정은 교회와의 건강한 거리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요인들은 사모들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시한 대안들을 통해 사모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이해의 폭을 가지고 정체성을 세워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지만 사모의 문제는 사모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사모 자신의 노력 위에 남편 목사의 바른 목회철학과 교인들의 고정관념의 틀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교회공동체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 아직도 본질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대부분의 교인들과 목사, 그리고 사모들에게 페미니즘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나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논문수정 과정에서 교수위원회의 권면을 듣고 내 안에 본질주의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나의 나 됨'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날수 있다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네이털리티(natality)-새로 태어남[271]의 사상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우리의 고착화된 의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긴다. 이 연구의 한계는 질적 연구를 위한 면접 대상인 사모들을 담임목사의 아내라는 조건의 3 명으로만 한정하여,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목회자 아내인 사모들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지 않고, 단지 사모에 대한 인터넷이나 신문기사[272]에서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지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사모들의 정체성 회복의 연구가 이루어진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코즈모폴리턴 '초정체성[273]의 정치학'이 중요한 사모의 정체성 회복에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우주의 시민(cosmos citizen)이라는 시각을 가진 정체성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나는 본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논문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구두시험을 통해 교수위원회의 지도로 인해 사회 구성주의(social

---

[271]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231.

[272] 양혜원, "사모라는호칭에 갇힌 나," *뉴스엔 조이, February 17, 2010,* http://m.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1766 (Accessed January 15, 2018).

"사모들이 외로운 12 가지이유," *기독일보*, Feubruary 18, 2014, http://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77423/20140218/%EB%AA%A9%EC%82%AC-%EC%82%AC%EB%AA%A8%EB%93%A4%EC%9D%B4-%EC%99%B8%EB%A1%9C%EC%9A%B8-%EC%88%98-%EB%B0%96%EC%97%90-%EC%97%86%EB%8A%94-12%EA%B0%80%EC%A7%80-%EC%9D%B4%EC%9C%A0.htm (Assessed February 1, 2018).

[273] '초정체성'이란 개념은 개개인이 지닌 특별한 정체성을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강남순은 개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을 끌어안는 동시에 그 자리에만 제한시켜서 머물지 않고, 정체성의 원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감으로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주변화와 억압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각기 다른 '정체성'들을 분화된 개별적 존재로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분화된 것을 넘어서는 다양한 변화의 연합운동이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63.

constructionism)[274]을 체득하므로 사고의 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나의 60 년 인생의 과정에서 이정표가 되는 소중한 시간대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 프로젝트는 사모만의 자아정체성 연구로 그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아직도 뿌리 깊은 유교문화의 남녀 차별이나 권위주의가 한국 기독교에서 독특한 형태로 변형되어 강한 담임목회자의 리더십을 만들어가고 있는 본질주의적인 교회의 구조속에서 오늘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 약자, 소수자, 주변인들의 정체성 회복에 대한 관심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274] 사회구성주의는 생물학적 본질주의와 반대개념으로 여성, 남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로부터 구성된 후천적인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적 본질주의가 말하는 여성, 남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고 생물학적 차이를 부정하지 않는다. 차이를 차별의 근거로 정당화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강의.

부록 A: 연구참여동의서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Claremont School of Theology, 1325 N. College Ave. Claremont, CA 91711) 박사 과정 중에 있는 박운송 목사입니다.

저는 "페미니즘과 CBT 활용을 통한 한인 목회자 사모의 자아 정체성 회복" 이라는 제목의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들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논문입니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 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과를 담당하시는 이경식 교수님의 지도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연락하시기를 원한다면 이메일 slee@cst.edu 로 연락하시거나 1-909-44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신다면, 귀하는 심층 인터뷰에 약 90 분 가량 참여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터뷰 진행 과정 동안 인터뷰 내용은 녹음되고 필사 될 것입니다. 녹음된 모든 내용과 필사본은 논문 연구에만 사용될 것이고 논문 연구가 끝나면 모두 파기 될 것입니다. 귀하는 연구참여에 비용을 지불 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이름, 이메일, 다른 개인적인 정보는 연구자료가 수집되는 기간 동안만 보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연구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논문에 귀하의 인터뷰 내용이 기재될 때 귀하의 성함과 개인 정보는 모두 익명으로 기재함으로써 귀하의 권익과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연구참여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귀하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을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어느 때든지 연구참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참여 철회는 귀하가 가지고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연구참여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단순하게 참여를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연구와 관련한 질문이 있거나 귀하의 이메일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면 연구자 박운송 목사의 전화번호 213-700-**** 혹은 이메일 woonsongp@gmail.com 으로 연락바랍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연구번호, IRB 회장이 연구번호를 연구자에게 부여할 것입니다]입니다. 만약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거나 이 연구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관윤리심사위원회 회장의 연락처인 1-909-447-**** 혹은 irb@cst.edu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실 경우 익명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위에 설명된 정보를 읽었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나의 모든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 양식에 대한 사본을 받았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이름: _____

*날짜:*_____

연구참여자의 서명: _____

연구자의 이름: _____

*날짜:*_____

연구자의 서명: _____

부록 B: 지오르기(Giorgi)자료 분석 결과: 의미단위, 주제 및 구성요소

의미단위 요약	주제	구성 요소	범주
1. 사모는 생활이 어려워야 한다. 2. 경험을 통해 여가생활이나 자기 치장하는 사모에 대한 비난의 소리를 기억 3. 이상적인 사모상은 그림자처럼 뒤에서 남편을 내조하는 모습 4. 자신의 사모에 대한 생각은 사생활 포기하고 교회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생각 5. 사모는 많이 참아야 하고 교인과의 거리도 두어야 된다고 생각	1. 사모는 외모에 관심을 두면 안된다. 2. 목소리 없이 남편 목사를 내조해야 한다 3. 사모의 사생활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1. 일반적인 사모에 대한 부정적 이해	A.인지왜곡

1. 자신은 교인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2. 자신의 솔직한 모습으로 교인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 3.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모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수 있다고 생각 4. 이상적인 사모의 상을 비교할 때 자신은 사모의 상이 아니라는 생각 5. 자신은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이므로 사모의 삶이 힘들다고 느낌 6. 자신의 사모 점수는 10 점 만점에 5 점인 보통이라고 생각 7.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8.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속상한 느낌 9. 어떤 교인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 갈등을 피하기 위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한 실망 10. 교인들을 통제하고 지적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음 11. 사모관은 교인들을 무조건 품어주어야 한다고 생각	1. 자신의 솔직한 성격과 인내하지 못하는 성격은 사모로서 부적합하다 2. 남편 목회의 걸림돌이 되기 쉽다. 3. 사모감은 정해져 있다. 4. 사모로서 교인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한 자책감 5. 성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감 6. 교인들을 회피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회의와 실망 7. 교인들을 통제하고 지적 하려는 마음 8. 교인과의 갈등에서 본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대한 실망 9. 교인들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	2. 자신에 대한 부정적 사고	

12.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교인들이 변화되지 못한다고 생각			

1. 사모의 역할은 남편 목사의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 것이다라는 생각 2. 사모의 사역은 남편 목사의 약점을 보완 하는 사역 3. 사모의 사역은 목회의 방향과 남편 목회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그 상황속에서 필요한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 4. 사모의 사역은 자신의 장점과 성격을 사용하면서 남편 목회자 사역을 돕는 역할 5. 사역을 할 때 남편의 지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모(큐티 책을 선정하는 문제, 제자 훈련 책 등)	1. 남편의 목회를 돕는 것이 사모의 역할 2. 남편 목회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모의 역할 3. 남편 목회의 방향에 맞추어 사역하는 것이 사모의 역할 4. 사모의 사역은 남편 목사의 지침에 순종	사모역할에 대한 일반적 이해	B. 목사 중심적 목회

1. 교인들의 배신으로 교인들을 믿지 못하고 친밀감을 가지기 어렵다는 선입관 2. 사모의 길은 외롭고 고독한 길이라는 깨달음 3. 교인들은 사모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 4. 주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교인들의 요구로 인한 상처 5. 주일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모에게 잘못을 지적하려고 전화하는 교인들에 대한 야속함과 분노 6. 교인에게 사모가 무슨 일이든 간섭하면 안된다는 충고를 들음 7. 교인과의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 두통의 경험이 있음 8.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으려는 결과로 인한 교인들의 공격을 경험 9. 사모는 잠잠해야 겠다는 사실을 실제 상황을 겪으면서 느낌 10. 사모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의 어려움을 깨달음 11. 교인과의 신뢰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생각	1. 교인들의 배신으로 아파하는 사모 2. 혼자라는 생각을 하는 외로운 사모 3. 사모의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교인들로 인한 상처 4. 교인과의 문제로 인해 신체화 현상 5. 교인들에게 인정이나 격려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사모 6. 교인들의 오해와 비방으로 인한 아픔과 오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는 안타까움 7. 교인과의 갈등 해결을 본인이 해야 한다는 부담감 8. 교인들이 남편 목사와는 달리 사모에 대해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 9. 다양한 교인들의 요구에 대해 사모의 제한적인 삶에 대한 한계를 느낌	1. 교인과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2. 교인으로 인한 마음의 번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감	C. 고정관념

12. 교인들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경험 13. 인사해도 본척 만척하는 교인으로 인한 상처 14. 교인들에게 인정이나 격려받은 기억이 없는 사모 15. 교인들과의 갈등을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16. 다양한 교인들의 삶에 사모가 맞춰야 하는 어려움 17. 다양한 교인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본인의 취향대로 옷을 입는 것도 제한 됨 18. 자신에 대해 비난하는 교인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모의 삶 19. 자신의 마음을 교인들이 못 알아줄 때 증명할 길이 없음으로 인한 안타까움	10. 자신을 비난하는 교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모의 삶		
1. 교인편에서 사모를 비난하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 2. 목회에 대한 조언을 듣지 않는 남편에 대한 섭섭함 3. 교인들로 인한 상처를 남편에게 위로 받으려고 이야기 했다가 자신을 질책하는 남편에 대한 분노 4. 자신에게 잘못만 지적하는 남편에게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 단절 5. 남편의 사모에 대한 인식은 말없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와	1. 말없이 순종하며 내조하기 원하는 남편 목사의 바램 2. 지적만 하는 남편에 대한 두려움 3. 격려에 인색한 남편의 모습 4.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아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	남편 목사와의 관계	D. 유교적 영향

말씀에 집중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타입의 사모 6. 사모같지 않다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책감, 섭섭함, 배신감이 들때도 있음 7. 남편에게 격려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실망 8. 남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로 세우셨으므로 순종함			

참고문헌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과 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의 귀환." *기독교사상* 66 (2014): 198-209.

_____. "이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기독교사상* 66 (2014): 258-74.

_____. "탈정치적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기독교사상* 66 (2014): 222-42.

_____. "코즈모폴리턴 환대의 신학 - 필요성과 불가능성의 경계에서." *기독교사상* (2014): 234-250.

강민경.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한 방향." *비평문학* 45 (2012): 205-231.

강석근.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기독교사상* 43, no. 11 (2000): 78-88.

권진숙. "여성주의 목회신학에서 바라본 상호관계." *목회와 상담* 18 (2012): 7-36.

김남준. *목회자의 아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8.

김금미 and 한덕웅. "여성의 성별 사회정체성과 남녀간 경쟁전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no. 2 (2001): 15-38.

김동영. "상실과 애도 그리고 돌봄에 대한 이해." *신학논단* 79 (2015): 125-59.

김신섭 and 정구철. "목회자 아내의 자아정체감이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 콘텐츠학회 논문지* 12, no. 5 (2015): 242-53.

김영천. *질적연구방법론 II: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2013.

김애경. *한국여성 신학의 지평.* 서울: 한울, 1995.

김예식. "신앙적사고(Faith Thinking)로의 전환을 통한 크리스챤 우울증 인지치료."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0 (2005): 7-33.

김윤옥. *한국여성신학의 현단계, 여성, 평화.* 서울: 평화사, 1992.

도이힐러, 마르티나 and 윤성진. "유교에 기초한 입법화와 이것이 여성의 지위에 미친 결과." *역사와 경계* 44 (2002): 159-212.

서정민. "이수정과 일본기독교와의 관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43 (2015): 95-125.

심하보.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모는 눈길이 덜 가는 곳을 살핀다.* 서울: 나침반, 1999.

양혜원. "사모라는 호칭에 갇힌 나." *미주 뉴스 앤 조이,* Feb. 17, 2010. http://www.newsm.com/news/articleView.html?idxno=1766 (Accessed June 21, 2017).

이상수. "로스쿨 학생들이 바라보는 바람직한 범사회학 강의의 구조-현상학적 질적 연구방법에 의한 도출." *법서학연구* 43 (2011. 4): 101-31.

이현재. *여성의 정체성.* 서울: 책세상, 2007.

_____. "여성주의적 정체성과 인정이론 - 헤겔 변증법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 *시대와 철학* 16, no. 1 (2005): 63-84.

윤소정. "내가 꿈꾸는 교회." *한국여성신학* 75 (2012): 72-75.

장열. "사모의 한숨 …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LA 중앙일보*, Feb. 16, 2015.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179419 (Accessed June 17, 2017).

전요섭.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 서울: 기독교 문화선교회, 2012.

정미현. *또 하나의 여성 신학 이야기.* 서울:한들출판사, 2007.

정숙자, 최만자, 이현숙, 최영실, 박경미, 이은선, 구미정, 한국염, 김윤옥, 양미강, and 권미경. *생존과 해방을 향한 여정.*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99.

정윤석. "어정쩡한 직분 사모, 차라리 폐지할까?." *교회와 신앙*, Oct. 30, 2006.

http://www.amennews.com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46 (Accessed June 19, 2017).

정희성. "한국 기독여성의 가족 경험에 대한 고찰." *목회와 상담* 7 (2005): 185-216.

_____. "한국여성을 위한 이혼 숙려 상담의모색." *목회와 상담* 8 (2006): 127-53.

정충영. "왜 서번트 리더십인가?." *로고스경영연구* 4, no. 2 (2006): 1-23.

조주현. "20 세기 한국사회 성담론과 여성의 지위." *정신문화연구* 22, no. 4 (1999): 53-77.

조혜자. "젠더 범주가 자아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연구* 8 (2005): 40-72.

조혜자 and 방희정. "중년여성의 자아정체성." In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2006), 202-3

최만자. *여성의 삶 그리고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최순양. "스피박의 서발턴(하위주체)의 관점에서 바라 본 아시아 여성신학과 민중신학적 담론에 대한 문제 제기." *신학논단* 72 (2013): 229-62.

최정선 and 김희수. "유치원교사가 지각한 자기의식 수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9, no. 5 (2014): 387-404.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울: 여이연, 2001.

Beck, Aaron T.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우울증의 인지치료.* Translated by 원호택. 서울: 학지사, 1973.

_____. *Love is never Enough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다.* Translated by 채석봉. 서울: 학지사, 2001.

Berns, David. *Feeling Good 우울한 현대인에게 주는 번스 박사의 충고.* Translated by 박승용. 서울:문예출판사, 1991.

Briers, Stephen. *Brilliant Cognitive Behavioural Therapy 똑똑한 인지행동치료.* Translated by 김성욱, 김원, 김혜경, 조철래, and 최병휘.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Burton, Margaret E. *The Education of Women in China.* New York: Fleming H. Revell

Company, 1911.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젠더 트러블*. 파주: 문학동네, 2008.

Chodorow, Nancy. "Family Structure and Feminine Personality." In *Women, Culture and Society,* edited by M. Z. Rosaldo and L. Lamphe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4), 43-66.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 방법론*. Translated by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and 권지성. 서울: 학지사, 2010.

Gilligan, Carol. *다른 목소리.* Translated by 허란주. 서울: 동녘, 1997.

Kaschak, Ellyn. *Engendered Lives: A New Psychology of Women's Experience.* New York: Basic, 1992.

Kristeva, Julia. *The Kristeva Reader.* Edited by Toril Moi.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6.

Ledley, Deborah Roth, Brian P. Marx, and Richard G. Heimberg. *초보자를 위한 인지행동치료.* Translated by 김정모 and 전미애. 서울: 학지사, 2014.

McMinn, Mark R. *기독교 상담과 인지 요법.* Translated by 정동섭. 서울: 두란노, 1996.

Neuger, Christie Cozad. *여성들을 위한 목회 상담.* Translated by 정석환. 서울: 한들출판사, 2002.

Rosalind C. Morris, "서문." In *서발턴은 말할수 있는가?.* Edited by Rosalind C. Morris. Translated by 태혜숙 (서울: 그린비, 2013), 11-40.

Seiden, Irving. *질적연구 방법으로서의 면담.* Translated by 박혜준 and 이승연. 서울: 학지사, 2009.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London: Macmillian, 1998.

Stoller, Robert J. "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Gender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45 (1964): 220-26.

Young, I. M. "Humanism, Gynocentrism and Feministic Politics." *Hypatia* 8, no. 3 (1985): 173–83.